

연구자료 D184 / 2003. 12.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과 전망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박 대 식 연 구 위 원
박 경 철 초청연구원

연구담당

박 대 식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제4장, 제6장~제7장 집필
박 경 철 초청연구원 제4장~제5장 집필

머 리 말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인구는 연평균 1.6%씩 감소하였다. 그러나 농촌인구는 읍·면부, 대도시와의 근접성 등에 따라서 변화 양상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촌인구의 도시 전입이 대폭 줄어들어 도시화의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다.

미국, 호주,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의 선례에 따르면, 도시화가 일정 수준까지 진행된 후에는 농촌인구의 감소가 크게 둔화되거나 인구이동의 방향이 ‘농촌에서 도시로’부터 ‘도시에서 농촌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 국내·외 농촌의 사례조사, 인구추계 결과 검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농촌인구 감소 추세의 변화 가능성 및 지역별 차별성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 결과가 앞으로 농촌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 조사에 협조해 주신 관련 전문가, 현지 조사에 응해 주신 사례조사지역의 농촌주민, 연구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신 관계기관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①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② 국내·외 농촌의 사례조사, 인구추계 검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21세기 초반에 있어서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있어서 농촌이란 읍·면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은 2020년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는 인구구조,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활동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를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활동의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만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기존 자료 조사, 관련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및 선행 연구의 인구추계 결과에 대한 검토, 전문가 의견 조사, 사례 지역 현지조사, 선진국의 농촌 지역사회 변화 동향 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도시인구의 증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농 인구가 도시인구 증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도시인구의 자연증가가 도시인구의 증가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

도시화 관련 자료, 사례 연구지역의 조사 결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외국의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앞으로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가 더욱 둔화 내지 안정화되고 대도시 근교농촌 및 경치가 수려한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속교통망이 더욱 확충되고, 주5일근무제가 보편화되며, 국가균형발전법, 지방분

권특별법이 시행되고,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친 환경적인 생활양식이 선호되고, 베이비 붐 세대 연령층의 직장은퇴가 본격화되면, 도시인구의 농촌유입은 더욱 늘어나고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는 둔화 내지 안정화될 것이고, 대도시와 근접한 곳, 환경, 관광, 여가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가족구조는 인구의 노령화, 근교농촌의 혼주화 경향 등의 이유로 1인 단독가구나 부부만의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조직의 변화에 있어서는, 마을 단위에서 운영되는 사회조직의 수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촌마을의 혈연 및 지연적 사회조직은 마을 단위의 경제적 협동과 같은 기능은 다소 축소되겠지만 사회·문화적 기능은 더욱 중요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생활의 변화에 있어서는, 농가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위탁영농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즉, 근로 능력이 아주 약화된 노령농가의 농지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젊은 농가에게 임대되는 경우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지역의 대도시와의 근접성 정도는 인구의 전출입, 취업기회, 사회·문화·복지시설 등에 있어서 상이한 여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인정받는 시대가 성큼 다가옴에 따라서 산간농촌지역의 주거지로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3
3. 연구 범위와 내용 7
4. 연구방법 8
5. 분석모형 9

제2장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관련 이론적 검토

1. 농촌사회의 변화에 관한 사회학적 논의 11
2. 인구변동 및 인구추계 관련 이론적 검토 13
3. 기존의 농촌인구추계 결과에 대한 검토 15

제3장 우리나라 농촌인구의 변화 동향

1. 농촌의 인구 및 가구 변화 20
2. 출산력의 변화 24
3. 사망력의 변화 27
4. 인구이동 관련 변화 28
5. 경제활동 및 사회경제적 특성 관련 변화 29

제4장 사례조사지역의 사회변화 동향

1. 파주시 조리읍 대원1리 31
2. 논산시 채운면 야화2리 39
3. 금산군 남이면 대양2리 49

제5장 선진국의 농촌사회 변화 동향

1. 일본	59
2. 미국	62
3. 유럽	64
4. 시사점	65

제6장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과 전망

1.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 동향과 전망	66
2. 농촌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활동의 변화 전망	68
3. 농촌 지역사회 변화의 지역별 차별성	70

제7장 요약 및 결론

부 록. 마을 조사표	78
-------------------	----

ABSTRACT	85
----------------	----

참고문헌	86
------------	----

표 차 례

제3장

표 3- 1.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 추세	21
표 3- 2. 도시와 농촌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1960-2000	21
표 3- 3. 도시와 농촌의 연령별 인구 구조, 1960, 2000	22
표 3- 4. 연령구조의 변화, 1960, 2000	23
표 3- 5. 가구원의 성 및 거주지역별 가구형태 비율, 1980-2000	23
표 3- 6. 가임연령 여성인구의 변동 추이, 1960-2000	24
표 3- 7. 어머니의 현거주지 및 연령별 출생아수, 1970-2000	25
표 3- 8. 지역(동·읍·면)별 연령별 성비, 2000	26
표 3- 9. 도시-농촌간의 인구이동, 1965-2000	28
표 3-10. 도시-농촌 구분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 1980-2000	29
표 3-11. 도시와 농촌 인구의 교육수준, 1966-2000	30

제4장

표 4- 1. 파주시의 인구 변화 추이	32
표 4- 2. 파주시의 농가 및 농가인구	33
표 4- 3. 대원1리의 인구 및 가구 수 변화 추이	35
표 4- 4. 대원1리의 연령대별 인구분포	35
표 4- 5. 대원1리의 가족 형태의 변화, 1991-2003	37
표 4- 6. 대원1리의 가구원수별 가구 수 변화, 1991-2003	37
표 4- 7. 논산시의 인구 추이	41
표 4- 8. 논산시의 농가 및 농가인구	41
표 4- 9. 채운면의 인구 추이	43

표 4-10.	야화2리 사망자의 연령분포, 1985-2003	43
표 4-11.	야화2리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의 변화, 1985-2003	44
표 4-12.	야화2리 전출자의 연령별 분포, 1985-2003	45
표 4-13.	야화2리 전입자의 연령 분포, 1985-2003	46
표 4-14.	야화2리의 가족 형태의 변화, 1985-2003	47
표 4-15.	야화2리의 가구원수별 가구 수 변화, 1985-2003	47
표 4-16.	경제활동에 따른 가구 구분(야화2리)	48
표 4-17.	금산군의 인구변화 추이	50
표 4-18.	금산군의 출생 및 사망 추이	50
표 4-19.	금산군의 인구이동	51
표 4-20.	남이면의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 추이	52
표 4-21.	사망자의 연령 분포(대양2리)	53
표 4-22.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의 변화(대양2리)	54
표 4-23.	전출자의 연령별 분포, 대양2리, 1985-2003	55
표 4-24.	전입자의 연령 분포, 대양2리, 1985-2003	56
표 4-25.	대양2리의 가족 형태의 변화, 1985-2003	57
표 4-26.	대양2리의 가구원수별 가구 수 변화, 1985-2003	57
표 4-27.	경제활동에 따른 가구 구분(대양2리)	58

제5장

표 5- 1.	농가인구의 변화 추이 및 전망(일본)	60
---------	----------------------	----

그 립 차 례

제1장

그림 1-1.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분석모형	10
--------------------------------	----

제4장

그림 4-1. 파주시의 위치도	32
그림 4-2. 조리읍의 위치도	34
그림 4-3. 인구의 연령 구성 변화, 대원1리, 1991-2003	36
그림 4-4. 논산시의 위치도	41
그림 4-5. 채운면의 위치도	42
그림 4-6. 야화2리의 연령 구성의 변화, 1985-2003	45
그림 4-7. 금산군의 위치도	49
그림 4-8. 남이면의 위치도	52
그림 4-9. 인구의 연령 구성 변화, 대양2리, 1985-2003	54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농촌인구의 비율은 1960년의 72.0%에서 2000년의 20.3%로 감소하였다. 즉, 지난 40년 동안 농촌지역의 인구는 연평균 1.6%씩 감소하였다.

그러나 농촌인구는 읍·면부, 대도시와의 근접성 등에 따라서 변화 양상이 크게 달랐다. 지난 40년 동안에 읍부(邑部)의 인구는 연평균 1.3% 증가했는데 반해서, 면부(面部)의 인구는 연평균 2.6% 감소하였다. 특히, 인근 대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늘어났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한 읍(63개)과 면(126개) 지역은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충남북권에 집중되어 있다.

1960~1980년대는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집중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압축적 도시화의 단계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촌인구의 도시 전입이 대폭 줄어들어 도시화의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다(김두섭 외, 2002). 이전 시기에는 매 10년마다 20% 정도 증가하던 도시화율이 1990년대

에는 5.3% 상승하는 데 그쳤다.

미국, 호주,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의 선례에 따르면, 도시화가 일정 수준까지 진행된 후에는 농촌인구의 감소가 크게 둔화되거나 인구이동의 방향이 ‘농촌에서 도시로’부터 ‘도시에서 농촌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uguitt et al. 2002; Johnson 1989; Hugo and Smailes 1985; 김두섭 외 2002; Smailes and Hugo 1985). 이러한 경향은 생활양식의 변화(친 환경적 생활의 선호), 귀농자의 증가, 은퇴자의 전입, 교통·통신의 발달, 재택근무의 증가 등으로 기인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농촌인구를 추계함에 있어서 인구이동의 방향이 지역에 따라서 ‘농촌에서 도시로’에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인구 감소가 지금까지의 추세대로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대도시와의 근접성과 연계한 지역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이 연구의 주요 문제의식은 ①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농촌인구가 안정 또는 증가할 것인가?, ② 앞으로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③ 또한 이러한 변화는 대도시와의 근접성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낼 것인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21세기에 우리 농촌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촌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 농정의 강조점이 농업 생산에서 농업인 및 농촌 지역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 문제가 농정의 핵심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고양하고 농촌주민들의 복지를 크게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촌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가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전망해보는 것

은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발전의 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정립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①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② 국내·외 농촌의 사례조사, 인구추계 검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21세기 초반에 있어서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이다.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종합적인 연구, 인구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2.1.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관련 종합적 연구

이만갑(1984)의 「공업발전과 한국농촌」은 1958년, 1969년, 그리고 1980년 세 번에 걸쳐서 경기도에 있는 두 지역 6개 촌락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변화, 공업화에 따른 농민생활의 변화, 새마을운동, 전출과 전입, 동족결합과 반상차별, 농촌경제의 변화, 생활의 향상, 정치와 행정 등이다.

최재석(1988)은 「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에서 이촌과 관련하여 가족, 재산 상속, 양자 및 제사상속, 혼인, 친족, 문중, 농촌계층, 농업생산 활동, 농지소유, 농지임대차 관계, 농촌개발 등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김수욱(1990)은 「농촌사회 구조변동에 관한 연구: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을 중심으로」에서 농촌사회의 변화를 인구구조, 경제구조, 농업노동력구조, 사회조직, 생활환경, 주민 의식구조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문옥표 외(1993)는 「근교농촌의 해체과정」에서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를 산업과 경제구조, 인구 및 직업구조, 가족 및 의식주생활, 여성의 역할, 생

활양식, 조직 등의 측면에서 학제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명채 외(1995)는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제10년 차 조사결과 종합보고」에서 1985년부터 1994년까지 4개 마을 사례조사 결과를 가구 및 인구의 변화, 경제활동구조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생활환경 및 공간구조의 변화, 의식·가치관의 변화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오내원 외(1998)는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98년도 특별분석 결과」에서 농촌 가족 형태의 변화와 그 영향, 농촌가구의 유형 구분과 변동, 농촌 사회집단의 변화, 농촌 공간구조의 변화를 다루었다.

조승연(2000)은 「한국농촌사회변동과 농업 생산구조」에서 국가 농업정책의 전개 과정, 일제하의 농업 생산구조, 해방 후 농업 생산구조의 변화, 농민의 대응전략과 가족농 생산형태 등을 다루었다.

박대식(Park 2000)은 “Trend and Prospect of Rural Social Change”에서 농촌 사회의 변화를 인구구조, 가족구조, 경제활동구조, 지역공동체구조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정환 외(2001)는 「21C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 전략」에서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농촌지역의 변화 특성으로 ① 농촌 중·소도시의 발전과 농촌 인구이동의 둔화, ② 농촌정주 체계의 재편(농촌지역은 농촌 중·소도시인 읍과 면을 농촌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중심지로 하고 마을을 배후 지역으로 하는 정주 체계를 이루게 됨), ③ 조건불리지역의 발생 등을 들었다.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연구에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은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다(Roger et al. 1988). 그리고 다 학문적인 연구(문옥표 외 1993; 정명채 외 1995; 오내원 외 1998)일수록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를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인구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

최양부(1984)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이촌의 장기 전망」에서 1960~70년대에 진행된 농촌인구의 감소와 이촌의 실태를 파악하고, 1980~2001년간의 농촌인구의 감소와 이촌의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농촌인구는 1980년의 33.6%에서 2001년의 11.8~17.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김남일과 최순(1998)은 “인구이동과 지역 단위별 농촌인구분포의 변화”에서 농촌사회에서 관찰되는 인구구조의 왜곡 현상이 주로 농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원인이 있으며, 지역 단위(군)별로 인구구조상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병기(1999)는 “선별이농이 농촌사회에 미친 영향”에서 우리나라의 이농 현상은 농촌지역별·공업화시기별로 차이를 나타내지만 젊고 교육받고 남성인 농촌인력의 이농비율이 높았으며, 교육받은 인구가 농촌으로부터 이출함으로써 혁신적인 농촌지도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선별이농은 농촌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이러한 농촌빈곤의 심화가 이농을 더욱 촉진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기환 외(1999)는 「농촌 인구 과소화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에서 과소화지역을 구분하여 유형화하였으며, 과소화지역 유형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방책을 농업발전과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라는 시각에서 제시하였다.

김태헌(2001)은 “한국 농촌사회의 변천: 농촌 인구와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에서 농촌사회의 변화를 사회 구성원인 인구와 원초적 제도인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연구지역으로는 청주시로 출퇴근이 가능한 충북 청원군 옥산면의 2개 리(근교농촌)와 도시와 접하지 않은 충북 보은군의 2개 리(일반농촌)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농촌의 경우 성·연령별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역삼각형을 그리고 있으며, 이 현상은 지속적인 젊은 연령층의 전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근교농촌의 경우

에는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청·장년층에서 전출과 전입이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교농촌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 세대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전통적 특성이 감소하는 대신에 비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연령층의 전입으로 중간 연령층을 형성하게 되어 앞으로 도시 특성이 강한 새로운 지역사회로 변모할 것으로 보았다.

성주인(2002)은 “농촌의 미래 지표 전망”에서 통계청(2002)의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2000~2011의 농촌인구를 추계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농촌(읍·면부)인구는 2000년의 9,357,669명에서 2011년에는 8,748,690명으로 연평균 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2011년에 읍 지역의 인구는 연평균 0.2% 증가하는데 반해서 면 지역의 인구는 연평균 1.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김경덕(2003)은 “농촌지역(읍·면부) 인구분석: 실태, 전망”에서 지금까지의 인구추세를 감안하여 2020년까지의 농촌인구를 전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인구는 2010년에는 8,518천 명, 2020년에는 7,480천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환(2003)은 “농촌인구와 가족구조의 변화”에서 농촌인구의 총량적 변화, 농촌인구의 구조적 변화, 농촌인구의 변동 요인, 농촌인구 이동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농촌가족의 형태적 변화, 농촌가족의 가구 분산화, 가족주기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가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었다. 농촌인구 이동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으로는 농촌 지역의 인구를 노인 중심으로 구조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경제사회 활력 상실, 노년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 증가를 가져왔으며, 남자인구에 대한 여자인구 비율의 급격한 저하로 농촌 지역의 인구구조가 불건전하게 되고, 농촌 총각들의 결혼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둔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이동으로 인한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활동 등의 변화는 지역별로 상당히 차등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농촌 지역사회

의 변화는 읍부와 면부, 도시근교농촌과 일반농촌 등에 따라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2.3. 선행 연구들의 한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관련 선행 연구들은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추세를 정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전망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몇몇 선행 연구들은 과거의 인구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농촌인구를 전망하고 있지만 주로 인구규모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전망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범위와 내용

3.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 있어서 농촌이란 읍·면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은 2020년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는 인구구조,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활동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를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활동의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만 분석하였다.

3.2. 연구의 주요 내용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1장(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연구 범위와 내용, 연구 방법, 분석모형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에 관한 사회학적 논의, 인구변동 및 인구추계 관련 이론적 검토, 기존 농촌인구추계 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인구의 변화 동향을 인구 및 가족구조,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 경제활동 및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3개 사례조사지역(파주시 조리읍 대원1리, 논산시 채운면 야화2리, 금산군 남이면 대양2리)의 사회변화 동향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선진국(일본, 미국, 유럽)의 농촌사회 변화 동향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 동향과 전망, 농촌의 인구구조 변화에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활동의 변화 동향과 전망, 농촌 지역사회 변화의 지역별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해 기존 자료 조사, 관련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및 선행 연구의 인구추계 결과에 대한 검토, 전문가 의견 조사, 사례 지역 현지조사, 선진국의 농촌 지역사회 변화 동향 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기존 자료 조사는 통계청,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관련 기관, 기타 국내·외의 문헌 및 통계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관련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및 선행 연구의 인구추계 결과에 대한 검토는 통계청 등의 관련 자료를 재분석하고 선행 연구의 인구추계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전문가 의견 조사는 농촌사회학, 인구학, 사회학, 농업경제학 관련 전문가 40명(20명 응답) 대상으로 하여 앞으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농촌사회에서 일어날 변화를 전망하게 하였다. 전자우편(E-mail) 조사를 위주로 하되 일반 우편조사와 전화면접 등을 보조 조사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농촌인구의 증감 및 속도, 인구이동의 방향, 농촌 지역사회 변화의 지역별 차별성에 대한 의견을 주로 조사하였다.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관련 사례 지역 현지조사는 농촌 지역사회 변화의 지역별 차별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대도시와의 근접성, 인구증감 유형, 과거 자료의 이용 및 조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사례 지역으로는 대도시 근교지역으로는 파주시 조리읍 대원 1리, 평야지역으로는 논산시 채운면 야화 2리, 산간지역으로는 금산군 남이면 대양 1리가 선정되었다. 현지조사는 마을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시·군 및 읍·면 단위도 함께 조사하였다. 그리고 관련 기관의 각종 통계자료, 문헌 등을 조사하고 지역 주민 대상의 심층면접, 관찰 등을 병행하였으며,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였다.

선진국의 농촌 지역사회 변화 동향 조사는 일본, 미국, 유럽 등의 농촌 지역사회 변화 동향을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서 관련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5. 분석모형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활동, 공간구조, 주민의 의식구조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종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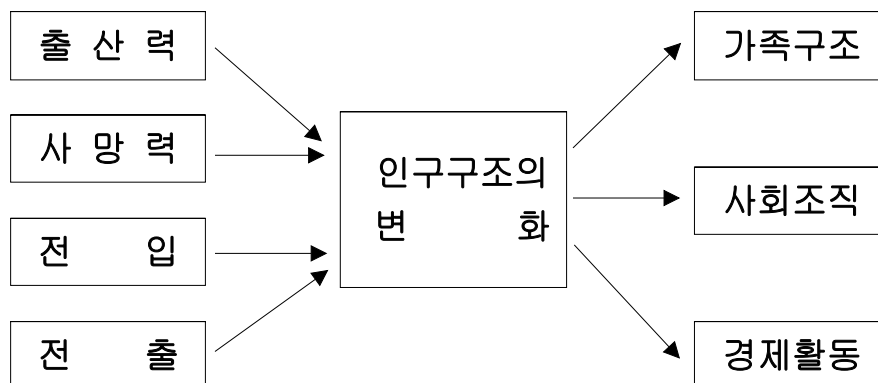
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 인력과 장기적인 연구기간, 그리고 다 학문적인 협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한된 연구 인력 및 기간을 감안하여 농촌 지역사회 변화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1>에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변화를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즉, 인구구조의 변화를 농촌 지역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인구이론을 근거로 삼아 인구구조의 변화를 직접 초래하는 요인으로 출산력, 사망력, 전입, 그리고 전출을 고려하였다. 즉, 인구구조의 변화 요인을 인구의 자연 증감과 인구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령별·성별구조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활동은 인구구조와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사회 변화의 중요한 차원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만 분석하였다.

농촌 지역사회 변화의 또 다른 차원인 공간구조, 주민의 의식구조 등은 한정된 조사 자료와 연구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림 1-1. 농촌 지역의 변화 분석모형



제 2 장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관련 이론적 검토

1.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에 관한 사회학적 논의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에 관한 사회학적 관점으로는 기능적 관점, 갈등적 관점, 인간생태학적 관점 등이 있다.

기능적 관점은 지역사회는 하나의 사회체계이며 이것의 중요한 하위체계로는 정부, 경제, 교육, 종교, 가족제도 등이 있다고 본다. 또한 기능적 관점은 어떤 체계 내의 성원들 간에 그리고 한 체계와 다른 체계 간에는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즉, 기능적 관점은 농촌 지역사회의 각 부분들은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기능적 관점에 따르면,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체계는 균형 상태를 향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기능적 관점은 농촌 사회관계에 있어서 협동, 조화, 상호 의존을, 사회조직에 있어서 통합과 균형을 강조한다. 기능적 관점은 사회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내적 분화와 외적 자극을 강조하며, 사회 변화를 점진적이고 진화론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기능적 관점은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는 조화, 통합, 균형을 위한 적응과정으

로 파악한다.

갈등적 관점은 자원과 서비스의 한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이해관계로 야기되는 갈등은 불가피하고 보편적인 사회현상이라고 본다. 갈등적 관점은 사회관계를 경쟁, 갈등, 지배, 착취 관계로 파악하며, 사회질서는 강압과 지배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갈등적 관점은 사회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내적 모순과 외적 갈등을 강조하며, 사회 변화를 변증법적이고 혁명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갈등적 관점에 따르면, 갈등이 지역사회에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갈등은 갈등관계에 있는 집단 내의 응집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가끔씩 분쟁에 휩싸이는 지역사회들은 갈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지역사회보다 더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경우가 많다. 갈등적 관점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갈등은 특정한 쟁점에서부터 일반적인 쟁점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으며, 일단 갈등이 진행되면, 새롭고 상이한 쟁점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인간생태학적 관점은 지역의 공간조직과 성장의 역동성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둔다. 즉, 인간생태학적 관점은 지역사회 성장의 기본적인 유형을 발견하고 지역사회가 왜 특징적인 공간적 외형을 나타내게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인간생태학적 관점은 사회관계를 경쟁, 갈등, 적응, 성장, 공생적 의존 등의 관계로 보고, 사회질서는 상호 의존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생태학적 관점은 지역사회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내외적 경쟁, 갈등, 지배, 계승 등을 강조하며, 사회 변화를 점진적이며 진화론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인간생태학적 관점은 기능적 관점과 갈등적 관점을 절충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생태학적 관점은 인구, 조직, 환경, 기술의 네 가지 요인들 간에서 형성되는 생태학적 복합체를 중요한 이론적 틀로 삼는다. 그리고 인간생태학적 관점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변화는 외부적인 영향으로 시작되지만, 내부적 특성과 외부적 영향이 결합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변화를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파

악한다. 이 연구에 있어서 인간생태학적 관점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농촌 지역사회의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준거 틀로 활용되었다.

2. 인구변동 및 인구추계 관련 이론적 검토

2.1. 인구변천이론

인구변천이론은 인구의 발전 또는 변화 단계에 주목한다.

국제연합의 분류는 5단계 변천이다. 1단계에는 고 출산율과 고 사망률을 나타내고, 2단계에는 고 출산율과 저하하기 시작한 그러나 아직도 높은 사망률을 나타낸다. 3단계에는 저하하기 시작하나 아직도 높은 출산율과 상당히 낮아졌으나 계속 떨어지는 사망률을 나타낸다. 4단계에는 저하하고 있는 출산율과 상당히 낮은 사망률을 나타내며, 5단계에는 저 출산율과 저 사망률을 나타낸다.

톰린슨(Thomlinson)의 인구전환 과정이론에 따르면,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특성을 지닌 전근대적인 사회가 산업화 등을 거치면서 소산소사(小産小死)의 특성을 지닌 근대적 사회로 전환된다. 톰린슨(Thomlinson)은 3개 과정(고 잠재성장기, 저 잠재성장기로의 전환기, 저 잠재성장기)으로 인구전환 과정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천 단계를 살펴보면, 1960~1985년에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망률도 계속 떨어져 국제연합 분류의 3단계와 4단계의 절충형태(톰린슨의 저 잠재성장기로의 전환기의 초기 단계)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1985~2000년 기간에는 출산율이 더욱 떨어져서 재생산수준 이하가 되고 사망률도 더욱 떨어져 국제연합 분류의 5단계(톰린슨의 분류 방식에서는 저 잠재성장기로의 전환기의 후기 단계 또는 저 잠재성장기의 초반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 잠재성장기(국제연합 분류의 경우는 5단계)에 들어서 출산율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2020년 중반 경에는 출산율이 사망률을 밑돌면서 전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농촌인구의 경우는 출산율이 사망률을 밑돌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추세에 비해서 20년 이상 앞서서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되어 이미 저 잠재성장기(국제연합 분류의 경우는 5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촌인구는 이미 ‘저 잠재성장기’라는 안정기에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감소율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 인구추계방법

인구추계방법으로는 수학적 방법, 경제적 방법, 조성법(Cohort Component Projections)이 있다.

수학적 방법은 조성법이 개발되기 이전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짧은 기간의 인구를 추계할 때 적용한다. 수학적 방법은 과거 일정 기간 인구 증가율을 이용하거나, 상황이 유사한 다른 인구의 변화율을 이용하여 총인구를 추계한다. 주요한 수학적 방법으로는 연간증가율을 이용하는 방법, 지수곡선을 이용하는 방법, 로지스틱 곡선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경제적 방법(Economic Method)은 인구가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변화함을 전제한다. 출산력과 사망력은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특히, 경제가 호전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반대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인구가 유출된다고 본다. 소득수준도 교육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 인구변동요인(출산, 사망, 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구규모나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조성법(Cohort Component Projections)은 기본적으로 인구방정식을 적용한다. 조성법은 기준 연도(t)의 인구에다 자연증감분(출생자수에서 사망자수를

감한 것)과 순 이동인구(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감한 것) 더하여 다음 해 (t+1년도)의 인구를 추계한다.

$$P(t+n) = P(t) + (B-D) + (I-E)$$

(P 인구, B 출생자수, D 사망자수, I 유입인구,
E 유출인구)

3. 기존의 농촌인구추계 결과에 대한 검토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촌인구를 추계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우리나라 농촌인구를 추계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양부(1984)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이촌의 장기 전망”에서 모델 1 (과거추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농촌인구의 성장 격차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과 모델 2(산업화의 초기에서는 급격한 도시화가 나타나나 도시화율은 점차 둔화된다고 가정할 경우)로 나누어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농촌인구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전망하였다. 농촌인구를 장기 전망하는데 적용한 방법은 당시 유엔이 사용하던 것으로 다음과 같다.

$$UGRD = \frac{\ln \left(\frac{PU(2)}{1 - PU(2)} / \frac{PU(1)}{1 - PU(1)} \right)}{n}$$

$$\frac{PU_t}{1 - PU_t} = \left(\frac{PU(1)}{1 - PU(1)} \right) e^{UGRD * t}$$

UGRD : n 기간의 도시와 농촌인구의 성장 격차

(urban/rural growth difference)

$PU(1)$: 첫 번째 인구센서스 시점의 도시인구율

$PU(2)$: 두 번째 인구센서스 시점의 도시인구율

PU_t : t 시점에서의 도시인구율

모델 1에 의하면, 농촌인구율은 1980년의 33.6%에서 1991년에는 20.1%, 2001년에는 11.8%까지 급격하게 하락하고, 농촌인구는 1980년의 12,561천 명, 1991년에는 8,794천 명, 2001년에는 5,799천 명의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경우, 1980~2001년간 연평균 36만 명에서 52만 명 정도의 농촌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모델 2에 의하면, 농촌인구율은 1980년 33.6%에서 1991년에는 22.4%, 2001년에는 17.0%까지 하락하고, 농촌인구는 1980년의 12,561천 명, 1991년 9,777천 명, 2001년 8,381천 명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경우, 1980~2001년간 연평균 21만 명에서 46만 명 정도의 농촌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성주인(2002)은 “농촌의 미래 지표 전망”에서 통계청(2002)의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하여 2000~2011년의 농촌(읍·면부)인구를 추계하였다. 농촌인구 추계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① 각 시·도별로 인구센서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85년부터 2000년까지의 전체 인구 대비 읍·면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 추이를 집계하고, ② 시·도 전체 인구 대비 읍·면 인구 비율의 시계열 변화치를 바탕으로 회귀방정식을 도출하고, ③ 예측 연도의 시·도 전체 인구 대비 읍·면 인구를 산정하고, ④ 통계청의 시·도별 인구 예측치에 대해 이 비율을 적용하여 해당 시·도의 읍·면 지역 인구 규모를 최종적으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구를 추계한 결과, 농촌(읍·면부)인구는 2000년의 9,357,669명에서 2006년에는 9,028,396명, 2011년에는 8,748,690명으로 연평균

0.6%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국적인 총량치의 변화 추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전국 시·도 중에서 전남과 전북의 읍·면에서 가장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화, 웅진 2개 도서로 구성된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 보았을 경우임).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곳은 부산(기장), 대구(달성), 울산(울주) 등 행정구역상 광역시 내에 포함되어 있어 대도시 영향권에 드는 농촌 지역으로 나타났다. 읍 지역과 면 지역을 구분해서 2000~2011년의 인구추계를 해 본 결과, 읍 지역의 인구는 2000년의 3,737,008명, 2006년 3,775,183명, 2011년 3,815,851명으로 연평균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면 지역의 인구는 2000년의 5,620,661명, 2006년 5,253,213명, 2011년 4,932,840명으로 연평균 1.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성주인, 2002).

김경덕(2003)은 “농촌지역(읍·면부) 인구분석: 실태, 전망”에서 연령별·성별 농촌 지역 인구를 전망하기 위하여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사용하였다. 연령별·성별 농촌 지역 인구전망 계산과정을 살펴보면, ① 해당 연도의 0세 인구는 해당 연도의 가임여성인구(15~49세)를 5세 계급별로 전망한 뒤, 5세 계급별 성별 출산율을 계산하여 출생자수를 성별로 전망하고, 성별 출생자수에 성별 유아사망률을 고려하여 계산하였음, ② 1~4세 인구는 전기 4년 동안 태어난 출생아 1/4씩 구분하여 유아사망률과 1~4세 사망률을 생존한 기간만큼 고려하여 지수법으로 계산하였음, ③ 마지막 연령계급에서 발생하는 사망률과 이혼율 자료의 일관성 문제를 경감하기 위하여 마지막 연령계급을 85세 이상에서 8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이혼율은 80~85세와 85세 이상의 평균 이혼율을 적용하였음(사망률 자료는 1985년까지는 80세 이상은 모두 사망하고 1990년부터는 85세 이상 모두 사망하는 것으로 가정함), ④ 그 외의 연령구간은 5년 전의 5세 어린 연령구간인구에 생존확률을 곱하여 계산하였다(계산의 정교함을 높이기 위해 각 연령계급 내의 인구빈도를 1/5로 나누어 각 연령계급구간의 생존확률을 지수법으로 계산하였음).

김경덕(2003)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이촌율을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1은 ① 2000~2005년의 이동률은 1980~1985(가중치=0.1), 1985~1990(가중치=0.2), 1990~1995(가중치=0.3), 1995~2000년(가중치=0.4) 이동률을 가중평균 하였으며, ② 2005~2010년의 이동률은 1985~1990, 1990~1995, 1995~2000, 2000~2005년의 이동률을 가중평균 하였으며, ③ 2010~2015년의 이동률은 1990~1995, 1995~2000, 2000~2005, 2005~2010년의 이동률을 가중평균 하였으며, 2015~2020년의 이동률은 1995~2000, 2000~2005, 2005~2010, 2010~2015년의 이동률을 가중평균 하였다. 시나리오 1에 의거하여 농촌인구를 추계해 보면, 2010년에는 8,009천 명, 2020년에는 6,668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나리오 2는 1995~2000년의 연령별 이촌율이 향후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2에 의거하여 농촌인구를 추계해 보면, 2010년에는 9,027천명, 2020년에는 8,292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덕(2002)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절충하는 접근을 취하여 2020년까지의 농촌인구를 추계하였다. 즉,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에서 추계된 전망치의 평균치를 사용하였고, 관할구역변경(jurisdiction problem)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농촌 지역의 인구는 2010년 8,518천 명(남자 49.6%, 여자 50.4%), 2020년 7,480천 명(남자 49.7%, 여자 50.2%)이 될 것으로 추계하였다. 그리고 농촌인구가 2000~2010년 기간에 연평균 0.9%씩, 2010~2020년 기간에는 연평균 1.3%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양부(1984)는 농촌인구를 추계함에 있어서 ‘과거추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와 ‘도시화율이 점차 둔화되는 경우’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일방적으로 가정하는 방식에 비해서 진일보했다고 평가된다.

성주인(2002)은 통계청(2002)의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2000~2011년의 농촌(읍·면부)인구를 체계적으로 추계를 하여 지역별로 유형구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변화

가 지금까지의 추세대로 앞으로도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만 가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김경덕(2003)은 시기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주고, 최근(1995~2000)의 인구 변동 상황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고속교통망의 확충, 주5일근무제도의 도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의 추진,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같이 앞으로 급변하게 될 우리나라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제 3 장

우리나라 농촌인구의 변화 동향

1. 농촌의 인구 및 가구 변화

<표 3-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도시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농촌(읍·면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촌인구는 1960년의 17,992천 명에서 2000년의 9,342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농촌인구의 비율은 1960년의 72.0%에서 2000년의 20.3%로 감소하였다.

<표 3-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1960년부터 2000년 기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연평균 1.5%씩 증가하였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도시는 연평균 4.2% 증가하였으나 농촌은 연평균 1.6%씩 감소하였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는 1985~1990년(연평균 4.5% 감소) 기간을 정점으로 하여 인구 감소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또한 읍부와 면부는 인구변화 추세가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읍부 인구는 198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1985~1990년에 연평균 5.6%씩 집중적으로 감소하였고, 1990~1995년에는 연평균 0.6%씩 감소하였으나,

1995~2000년에는 연평균 1.5% 증가하였다(1970~2000년 기간에 읍부 인구는 1.3%씩 증가하였음).

면부 인구는 계속 감소해왔는데 1980~1985년 기간에 연평균 4.3%씩 감소하여 감소율이 최고조에 도달한 뒤로 점차 인구 감소율이 둔화되어 1995~2000년 기간에는 면부 인구 감소율이 연평균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 추세

단위: 명

연도	전국	도시인구	농촌인구		
			계	읍부	면부
1960	24,989,241	6,996,746	17,992,495	2,258,713	15,733,782
1966	29,192,762	9,804,812	19,387,950	-	-
1970	31,435,252	13,130,940	18,504,312	2,850,355	15,653,957
1975	34,678,972	16,773,434	17,905,538	3,720,417	14,185,121
1980	37,406,815	21,419,453	15,997,362	4,536,826	11,460,536
1985	40,419,652	26,417,972	14,001,680	4,814,407	9,187,273
1990	43,390,374	32,290,055	11,100,319	3,602,462	7,497,857
1995	44,553,710	34,991,964	9,561,746	3,480,784	6,080,962
2000	45,985,289	36,642,448	9,342,841	3,742,053	5,600,788

주: 1966년 농촌인구의 계는 군부인구임.

자료: 인구 및 주택 총 조사 각 연도, 농림통계연보(1971), 한국통계연감(1975).

표 3-2. 도시와 농촌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1960~2000

단위: %

연도	전국	도시	농촌		
			전체	읍부	면부
1960~1966	2.6	5.7	1.2	-	-
1966~1970	1.4	6.8	-1.6	-	-
1970~1975	2.4	5.7	-0.3	5.5	-2.0
1975~1980	1.5	5.0	-2.2	4.1	-4.2
1980~1985	1.6	4.3	-2.6	1.2	-4.3
1985~1990	1.4	4.1	-4.5	-5.6	-4.0
1990~1995	0.6	1.6	-2.9	-0.6	-4.1
1995~2000	0.7	1.0	-0.4	1.5	-1.6
1960~2000	1.5	4.2	-1.6	1.3	-2.6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표 3-3>에는 도시와 농촌의 연령별 인구구조가 비교되어 있다. 1960년에는 도시와 농촌간의 연령구조가 상당히 유사했다. 그러나 2000년에는 40대 이하 연령층은 도시가 농촌보다 그 비중이 높고 50대 이상(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은 농촌이 도시보다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년·장년층의 도시 이주로 인해 농촌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4>에는 지난 40년 동안의 연령구조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지난 40년 동안 농촌(읍면)지역 인구는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유소년 및 청장년이 모두 줄어들었으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여 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에는 가구원의 성 및 거주지역별 가구형태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지난 20년 동안 1인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에 3세대 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도시보다 농촌에서 1인 가구 및 부부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비율이 점차 더 높아질 뿐 아니라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표 3-3. 도시와 농촌의 연령별 인구 구조, 1960, 2000

단위: 천 명, %

구분 연령	1960		2000	
	도시	농촌	도시	농촌
0~9	28.0	29.9	14.7	12.8
10~19	22.2	20.3	15.2	12.8
20~29	17.9	16.4	18.1	13.9
30~39	13.5	11.3	18.8	15.0
40~49	9.0	8.8	15.6	13.0
50~59	5.3	6.6	8.9	11.1
60~69	2.7	4.3	5.5	12.4
70 이상	1.4	2.4	3.2	8.9
합계	100.0	100.0	100.0	100.0
총수(천명)	7,000	17,992	36,642	9,342

자료: 경제기획원(1963); 통계청(2002).

표 3-4. 연령구조의 변화, 1960, 2000

단위: 천명, %

구분	1960			2000		
	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	동지역	읍면지역
인구	24,989	6,997	17,992	45,985	36,642	9,34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40.6	39.1	41.2	21.0	21.6	18.6
15~64세(%)	55.6	58.4	54.5	71.7	73.0	66.7
65세 이상(%)	3.7	2.5	4.2	7.3	5.4	14.7
노령화지수	9.7	6.4	10.3	35.0	25.3	78.7

자료: 경제기획원(1963); 통계청(2002).

표 3-5. 가구의 성 및 거주지역별 가구형태 비율, 1980-2000

단위: %

연도	가구형태	전체	성		거주지역	
			남성	여성	도시	농촌
1980	1인가구	1.1	0.8	1.5	1.2	1.1
	부부가구	3.2	3.2	3.1	3.1	3.2
	2세대가구	69.1	70.7	67.6	73.3	63.6
	3세대이상가구	24.3	23.2	25.4	19.1	31.2
	기타 일반가구	2.3	2.2	2.3	3.3	0.9
1985	1인가구	1.7	1.3	2.1	1.7	1.7
	부부가구	3.9	4.0	3.9	3.5	4.7
	2세대가구	70.0	71.6	68.5	74.0	62.7
	3세대이상가구	21.6	20.5	22.6	17.4	29.4
	기타 일반가구	2.7	2.6	2.9	3.4	1.4
1990	1인가구	2.6	2.2	3.0	2.5	3.0
	부부가구	5.2	5.3	5.1	4.3	8.0
	2세대가구	71.0	72.6	69.6	74.3	61.5
	3세대이상가구	18.7	17.6	19.8	16.2	26.3
	기타 일반가구	2.4	2.3	2.4	2.8	1.2
1995	1인가구	3.9	3.3	4.4	3.5	5.2
	부부가구	7.3	7.4	7.1	5.5	13.5
	2세대가구	71.2	72.6	69.9	74.6	58.9
	3세대이상가구	15.5	14.4	16.5	13.9	21.0
	기타 일반가구	2.2	2.3	2.1	2.4	1.4
2000	1인가구	5.1	4.2	5.9	4.6	6.8
	부부가구	8.8	9.0	8.6	6.8	16.4
	2세대가구	70.4	71.9	68.9	73.9	56.8
	3세대이상가구	13.6	12.8	14.5	12.4	18.5
	기타 일반가구	2.1	2.1	2.1	2.3	1.4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표본자료.

2. 출산력의 변화

<표 3-6>에는 가임연령 여성인구의 변동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지난 40년 동안에 도시의 가임연령 여성인구는 크게 증가한 데 반해서 농촌의 가임연령 여성인구는 1960년의 4,082천 명에서 2000년의 2,133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읍부는 1980년에 1,148천 명으로 최고 정점에 도달한 이후 1990년에는 950천 명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에 974천 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면부는 가임연령 여성인구가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임연령 여성인구의 비중 자체도 1960년의 45.4%에서 2000년의 43.6%로 감소함).

<표 3-7>에는 어머니의 현거주지 및 연령별 출생아수(1970~2000)가 제시되어 있다. 지난 30년 동안, 면부의 여성은 읍부의 여성보다 자녀 수가 많았으며, 읍부의 여성은 시(동)부의 여성보다 자녀 수가 많았다. 1970년대 15~54세 여성 전체 연령집단의 출생아수를 100으로 할 때, 15~54세 여성 전체의 출산율이 시부는 1980년 81, 1990년 67, 2000년 59이고, 읍부는 1980년 79, 1990년 63, 2000년 53이며, 면부는 1980년 86, 1990년 65, 2000년 51로 나타났다.

표 3-6. 가임연령 여성인구의 변동 추이, 1960-2000

단위: 천 명, %

구분 연도	가임연령 여성인구				가임연령 여성인구의 비중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전체	읍부	면부		전체	읍부	면부
1960	1,816	4,082	531	3,551	51.8	45.6	47.1	45.4
1970	3,467	3,830	652	3,178	63.0	50.1	55.0	49.2
1980	6,218	3,648	1,148	2,500	66.1	51.8	58.0	49.4
1990	9,756	2,619	950	1,669	66.8	50.9	57.7	47.7
2000	11,021	2,133	974	1,159	65.8	49.0	57.4	43.6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보고서.

표 3-7. 어머니의 현거주지 및 연령별 출생아수, 1970-2000

지표: 1970=100

연령 연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평균
시부									
1970	0.01	0.34	1.59	3.00	3.91	4.61	5.01	5.17	2.1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0	0.01	0.26	1.37	2.37	3.02	3.63	4.10	4.56	1.71
	(-)	(76.5)	(86.2)	(79.0)	(77.2)	(78.7)	(81.8)	(88.2)	(81.0)
1990	0.00	0.13	0.95	1.73	2.18	2.63	3.14	3.69	1.42
	(-)	(38.2)	(59.7)	(57.7)	(55.8)	(57.0)	(62.7)	(60.7)	(67.3)
2000	0.00	0.06	0.59	1.47	1.81	1.91	2.16	2.53	1.25
	(-)	(17.6)	(37.1)	(49.0)	(46.3)	(41.4)	(43.1)	(41.8)	(59.2)
읍부									
1970	0.02	0.48	2.01	3.59	4.65	5.40	5.71	5.69	2.8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0	0.01	0.40	1.67	2.78	3.63	4.38	4.86	5.21	2.25
	(-)	(83.3)	(83.1)	(77.4)	(78.1)	(81.1)	(85.1)	(91.6)	(78.9)
1990	0.00	0.19	1.17	1.94	2.55	3.17	3.77	4.38	1.78
	(-)	(39.6)	(58.2)	(54.0)	(54.8)	(58.7)	(66.0)	(77.0)	(62.5)
2000	0.00	0.13	0.91	1.69	1.94	2.05	2.50	3.07	1.53
	(-)	(27.1)	(45.3)	(47.1)	(41.7)	(38.0)	(43.8)	(54.0)	(53.7)
면부									
1970	0.02	0.58	2.39	3.95	5.03	5.76	6.02	5.92	3.3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80	0.01	0.45	1.92	3.18	4.12	4.88	5.34	5.63	2.91
	(-)	(77.6)	(80.3)	(80.5)	(81.9)	(84.7)	(88.7)	(95.0)	(86.1)
1990	0.00	0.20	1.27	2.13	2.84	3.48	4.18	4.77	2.20
	(-)	(34.5)	(53.1)	(53.9)	(56.5)	(60.4)	(69.4)	(80.6)	(65.0)
2000	0.01	0.16	0.94	1.74	2.02	2.24	2.73	3.28	1.75
	(-)	(27.6)	(39.3)	(44.1)	(40.2)	(38.9)	(45.4)	(56.5)	(51.8)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출산력 표본자료.

<표 3-8>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비(2000)가 제시되어 있다. 25~29세 인구의 경우 전국의 성비는 100.9로서 남자와 여자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동부와 읍부의 성비는 각각 98.5와 98.6인데 반해서 면부는 130.7로 나타난다. 면부의 경우 20대 후반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반면에, 동부와 읍부의 경우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다.

표 3-8. 지역(동·읍·면)별 연령별 성비, 2000

단위: 여자 100명당 남자 수

구분	전국	동부	읍부	면부
계	100.7	101.1	100.6	98.1
0~4	110.2	110.2	109.9	110.4
5~9	113.6	113.8	112.5	112.4
10~14	111.4	112.1	109.2	107.5
15~19	107.7	107.7	104.3	109.6
20~24	111.4	105.8	122.7	161.8
25~29	100.9	98.5	98.6	130.7
30~34	102.1	100.6	102.8	117.6
35~39	102.3	100.2	112.7	114.2
40~44	103.2	101.4	115.6	110.4
45~49	102.8	103.0	105.9	99.1
50~54	101.7	103.0	100.3	95.7
55~59	95.1	100.1	87.7	80.9
60~64	87.8	92.1	82.2	79.4
65~69	75.9	77.6	74.0	73.4
70~74	61.1	59.3	60.9	64.8
75~79	54.3	50.6	55.9	61.2
80~84	44.9	41.5	46.8	51.0
85+	29.8	28.3	29.7	32.4

자료: 통계청, 2002, 『200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3. 사망력의 변화

현재 사망력 관련 도·농간 비교 자료는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나라 조사망률을 살펴보면, 인구 1,000명 기준으로 1960년에 10명, 1990년 5.8명,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6.0 미만에서 정체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연령층의 사망자수 증가로 인하여 조사망률이 2010년에 6.0, 2020년에는 7.7로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남자의 경우는 1970년 9.2명, 1990년 6.6명, 2000년 5.8명이며, 여자의 경우는 1970년 6.8명, 1990년 5.0명, 2000년 4.7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아사망률은 남아는 1970년 40.8명에서 2000년 6.1명으로, 여아는 1970년 39.9명에서 2000년 5.9명으로 감소하였다.

평균수명(기대여명)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1966년 55.2세에서 2000년에는 75.9세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 78.8세, 2020년에는 80.7세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남자의 경우는, 평균수명이 1960년의 51세에서 2000년에는 72.1세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 75.5세, 2020년에는 77.5세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자의 경우는 1960년의 54세에서 2000년에는 79.5세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 82.2세, 2020년에는 84.1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01).

교육정도별 사망위험의 상대적 차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 증가 폭이 둔화되기는 하지만 학력별 사망률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1960년대에는 폐렴과 결핵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 악성 신생물(예를 들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운수사고 등으로 나타났다.

4. 인구이동 관련 변화

<표 3-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65년부터 2000년까지 35년 동안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유입된 순 이동인구는 800만 명에 달함을 알 수 있다. 1965~1990년 사이에는 연평균 32만 명씩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다.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도시인구의 증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 후반 농촌인구의 유입은 도시인구 증가의 3/4 가량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까지 이농 인구는 도시인구 증가의 40% 안팎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 이농 인구가 도시인구 증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로 감소하고, 도시인구의 자연증가가 도시인구의 증가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

표 3-9. 도시-농촌간의 인구이동, 1965-2000

단위: 천 명

기간	도시		농촌		도시로의 순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1965~1970	3,359	1,919	1,037	2,476	1,440
1970~1975	4,029	2,833	1,122	2,318	1,196
1975~1980	6,379	4,536	1,239	3,082	1,842
1980~1985	7,008	5,472	1,358	2,893	1,535
1985~1990	8,705	7,119	1,111	2,697	1,586
1990~1995	8,893	8,703	1,194	1,384	190
1995~2000	8,338	8,117	822	1,043	221

자료: 통계청, 2002.

5. 경제활동 및 사회경제적 특성 관련 변화

<표 3-10>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농촌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도시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훨씬 높다. 남성들의 경우는, 도시-농촌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에는 1966년과 2000년의 도시와 농촌 인구의 교육수준이 비교되어 있다.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인구의 도·농간 비중이 58 : 86에서 17 : 42 정도로 크게 벌어졌다. 청장년의 이촌향도로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저 학력 층에서의 도·농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의 비중에서는 도·농간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표 3-10. 도시-농촌 구분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 1980-2000

단위 : %

	1980	1985	1990	1995	2000
남자					
도시	69.5	70.0	73.1	77.0	70.2
농촌	75.3	74.3	75.7	81.0	76.0
여자					
도시	28.1	24.9	29.7	36.5	37.2
농촌	50.4	45.8	47.0	52.5	53.4

자료: 경제기획원 및 통계청, 해당 연도 인구센서스 2% 표본 원자료.

표 3-11. 도시와 농촌 인구의 교육수준, 1966-2000

단위: 천 명, %

학력	구분	1966		2000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무학		19.3	43.1	6.0	17.5
초등학교		39.2	43.2	10.6	24.8
중학교		21.6	8.3	12.3	13.3
고등학교		12.0	4.1	42.3	31.5
초급전문대학		1.2	0.3	10.1	5.9
대학교이상		6.6	0.9	18.7	7.1
합계		100.0	100.0	100.0	100.0
총수(천 명)		5,694	11,453	24,473	6,797

주: 미취학 연령층 및 재학생을 제외한 인구를 대상으로 비교함.
 자료: 경제기획원(1966); 통계청(2000).

제 4 장

사례조사지역의 지역사회 변화 동향

1. 파주시 조리읍 대원1리: 대도시 근교농촌

1.1. 파주시 및 조리읍의 변화

파주는 1996년 3월1일 시로 승격되었다. 파주시는 인구가 237,341명(2002년 12월 31일 현재)이고, 면적이 681.9km²이며, 행정구역은 3읍 11면 2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주시는 자유로, 통일로, 경의선 등을 통하여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대도시와 불과 3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그림 4-1>.

파주시의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연령계층구조가 피라미드 형태로 젊은 층이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적게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20년 동안 파주시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세대 수는 10년 단위로 30~50%의 증가율을 보였고 인구도 상당히 증가하였다<표 4-1>. 그리고 파주시의 출생자수는 사망자수의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1980년에는 전입과 전출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그 후 점차 전입이 늘어나면서 2000년에는 전입이 전출보다

약 1만 명 많았다. 인구유입은 같은 경기도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의 농가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2000년 당시 2종 겸업농가가 1종 겸업농가의 2배 정도로 나타났다<표 4-2>.

그림 4-1. 파주시의 위치도



표 4-1. 파주시의 인구 변화 추이

단위: 호, 명

연 도	세 대	인 구		
		계	남자	여자
1980	35,641	165,066	82,003	83,063
1990	43,562	185,046	93,977	91,069
2000	64,330	193,719	99,112	94,607
2002	82,207	237,341	120,598	116,743

자료: 파주시, 2003, 파주시 현황 자료.

표 4-2. 파주시의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호, 명

연도	농가				농가인구		
	계	전업	1종 겸업	2종 겸업	계	남	여
1980	12,874				45,064		
1985	13,733	10,097	2,887	740	54,853	29,529	25,324
1990	12,841	9,103	2,925	813	52,799	26,710	26,089
1995	10,277				39,136	19,707	19,429
1997	10,126				37,979	18,618	19,361
2000	9,419	4,409	1,790	3,220	33,865	16,986	16,879

자료: 파주시, 파주시통계연보, 해당 연도.

조리읍은 2002년 4월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인구는 31,753명(2003년 8월 현재), 면적이 27.44km²이며, 행정구역은 25개 통·리(208개 반)로 구성되어 있다. 조리읍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파주시의 남단에 있으며 고양시와 인접해 있고 서울과의 거리가 28km에 불과하다<그림 4-2>.

조리읍의 연령계층구조는 피라미드 형태로 젊은 층이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적게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조리읍의 인구변화 추이(1980~2003년)를 살펴보면, 지난 23년 동안 인구는 10,438명에서 31,753명으로 약 3배로 증가했고, 세대 수는 2,288세대에서 11,058세대 약 5배로 증가했다. 그리고 조리읍의 농가 수(2002년 말 현재)는 501가구(4.7%)로 나타났다.

1.2. 대원1리의 변화¹

대원1리는 조리읍의 소재지인 봉일천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파주시청이 있는 금촌과는 15km, 서울과는 31km 정도 떨어져 있다. 대원1리의 이전 명칭은 죽원1리 이었는데 2000년 6월에 대원1리로 개칭되었다.

¹ 대원1리(죽원1리)의 1991년 자료는 문옥표 외(1993)의 통계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음.

1.2.1. 인구구조의 변화

대원1리의 인구수는 1979년 782명에서 1991년 940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03년 596명으로 감소하였다. 가구 수는 1979년 155호에서 1991년 220호로 증가했다가 2003년 202호로 약간 감소하였다<표 4-3>. 그런데 투기 목적으로 주소지 전입만 해 놓고 마을에는 살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03년의 경우 위장 전입가구가 13가구로 조사됨). 그리고 대원1리의 남녀인구의 비율은 여전히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조리읍의 위치도



<표 4-4> 및 <그림 4-3>에는 대원1리의 연령 구성의 변화가 표와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다. 1991년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중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연령대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대원1리의 인구 및 가구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호

연도	인구			가구 수
	계	남자	여자	
1979	782	396	386	155
1984	722	373	349	156
1989	849	439	410	209
1991	940	499	441	220
2003	596	297	299	202(13)*

* 괄호 안은 위장전입 가구 수임(전체 가구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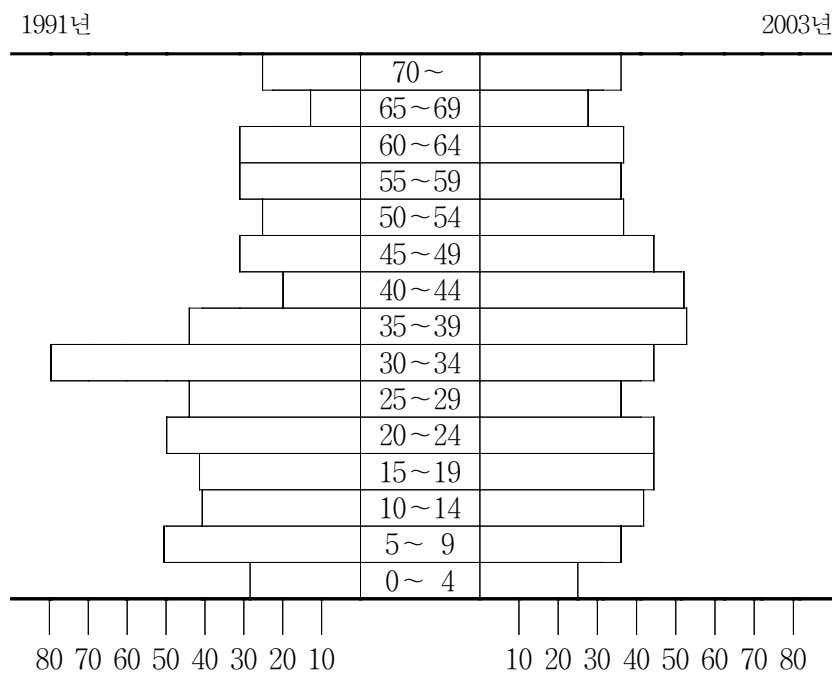
표 4-4. 대원1리의 연령대별 인구분포

단위: 빈도, %

구분	시 기	
	1991년	2003년
0 ~ 4	29(5.1)	27(4.5)
5 ~ 9	53(9.4)	36(6.0)
10 ~ 14	40(7.1)	42(7.0)
15 ~ 19	43(7.6)	45(7.6)
20 ~ 24	50(8.9)	44(7.4)
25 ~ 29	47(8.3)	35(5.9)
30 ~ 34	80(14.2)	44(7.4)
35 ~ 39	45(8.0)	54(9.1)
40 ~ 44	19(3.4)	52(8.7)
45 ~ 49	31(5.5)	44(7.4)
50 ~ 54	25(4.4)	38(6.4)
55 ~ 59	35(6.2)	32(5.4)
60 ~ 64	30(5.3)	39(6.5)
65 ~ 69	9(1.6)	27(4.5)
70세 이상	28(5.0)	37(6.2)
계	564(100.0)*	596(100.0)

* 1991년의 대원1리(죽원1리)의 가구 및 인구는 220가구, 940명이었으나 당시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조사된 것은 151가구, 564명이었음.

그림 4-3. 인구의 연령 구성 변화, 대원1리, 1991-2003



1.2.2.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생활의 변화

먼저 대원1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원1리의 가족 형태는 단독가구가 1991년의 9.4%에서 2003년의 22.2%로 크게 늘어나고, 1세대 가족의 비율도 다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서 3세대 이상 가족은 1991년의 19.6%에서 2003년의 9.6%로 크게 감소하였다. 단독가구는 주로 세입자들이다. 이들 세입자들은 마을 또는 마을 주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에는 대원1리의 가구원수별 가구 수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크게 증가했는데 반해서 5인 이상의 가구는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대원1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991년의 3.7인에서 2003년의 2.9인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1인 가구인 세입자들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원1리의 가족구조의 특징은 최소한 외형에 있어서는 도시로부터의 전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빠르게 도시적 형태(예를 들면, 핵가족의 비율이 증가하고 확대가족의 비율은 감소함)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층의 전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단독 또는 노인 부부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표 4-5. 대원1리의 가족 형태의 변화, 1991-2003

단위: 빈도, %

가 족 형 태	시 기	
	1991년	2003년
단독	14(9.4)	45(22.2)
1세대	17(11.5)	30(14.8)
2세대	88(59.5)	109(54.0)
3세대 이상	29(19.6)	18(9.0)
	148(100.0)*	202(100.0)

* 조사된 가구의 합계임.

표 4-6. 대원1리의 가구원수별 가구 수 변화, 1991-2003

단위: 빈도, %

가 구 원 수	시 기	
	1991년	2003년
1인	13(8.6)	45(22.3)
2인	22(14.6)	45(22.3)
3~4인	70(46.4)	86(42.6)
5인 이상	46(30.4)	26(12.8)
계	151(100.0)	202(100.0)
평 균	3.7인	2.9인

그리고 대원1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조직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농촌마을의 주요 사회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계 조직을 살펴보면, 1991년에는 대원1리 주민의 약 17% 정도가 마을 단위의 각종 계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2003년에는 마을의 몇몇 부녀자들만이 낙찰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목반과 같은 영농 관련 사회조직은 회원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읍 단위로 조직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회는 대원1리와 대원2리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회원 수는 70명 정도이다. 그리고 대원1리는 1991년과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마을 내에 소재하는 대원교회를 중심으로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 2003년에는 마을 내에 또 다른 교회가 신축 중에 있으며 마을 주변에도 아파트단지의 개발 등에 발맞추어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마을 주민의 60% 정도는 마을 내에 있는 대원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원1리에서는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조직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총회는 연말에 1회 개최되며 2003년 현재 기금이 6,000만원 정도 있는데 농협에 예치되어 있다. 그러나 한해 평균 유동가구가 20~30가구나 되고 외국인 근로자도 10여명 거주하는 등으로 인해서 토착주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그 결과 마을 주민 전체의 협동심과 지역공동체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대원1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생활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원1리의 농가 수는 1991년의 62호(41.1%)에서 2003년의 46호(28.4%)로 감소하였다. 농가 중에서 차지하는 겸업농의 비중은 1991년의 48.4%에서 2003년의 60.9%로 증가했다. 농외취업의 종류로는 기계제조나 식품 관련 업무, 경비, 막노동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대다수는 벼 농가이며 경지면적은 여전히 3,000~4,000평 정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이 지역의 논이 여전히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매매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농가경영주의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기계를 가지고 있는 젊은 농가에게 위탁영농이 점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사일은 75세 전후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미, 관엽 식물, 선인장 등을 재배하는 화훼농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비농가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를 제외한 가축의 사육은 몇 년 전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예를 들면, 양계장도 7~8년 전부터 완전히 없어졌다.

대원1리에서 비농가의 비율이 1991년의 58.9%에서 2003년의 71.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마을 내에 공장이 3~4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 마을 내에 있는 공장 수는 10여 개인데 종이, 떡, 포장, 실험기자재 등을 만드는 공장들이다. 상당수의 마을 주민은 이들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마을 내에 있는 삼송식품 및 신송전자에 10여 명의 마을 주민이 취업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마을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마을공장은 3~4개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마을에 외지인의 전출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로변을 중심으로 음식점, 잡화점 등이 증가하고 있다.

2. 논산시 채운면 야화2리: 평야농촌

2.1. 논산시 및 채운면의 변화

논산은 1996년 3월 1일에 시로 승격되었다. 논산시의 인구(2002년 12월 31일 현재)는 167,974명이고, 면적이 615.52km²이며, 행정구역은 2읍 12면 2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산시는 충청남도 중남부에 위치하여 전라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동으로는 대전광역시와 금산군, 서로는 부여군, 남으로는 전라북도 익산시와 완주군, 북으로는 공주시와 인접하고 있어서, 서울과

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그림 4-4>. 논산시는 기름진 토양과 많은 일조량 등으로 딸기 등 시설채소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딸기생산량은 전국의 13%를 점유하고, 주요 농산물은 쌀, 사과, 배, 포도, 인삼 등이다.

논산시의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2002년)이 13.8%나 된다. 논산시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20년 동안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인구는 2000년까지 계속 줄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논산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1996년 3월 1일부터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되었고, 최근에는 대전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두마면의 계룡출장소가 아파트단지로 개발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2년 당시 논산시의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7>.

논산시의 출생과 사망 추이를 살펴보면, 논산시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약간 많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논산시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전입보다 전출이 많으며 그 차이는 최근 들어 더 크게 나타나 논산시의 인구유출이 심함을 알 수 있다. 논산시의 인구유출은 시도 내보다는 다른 시도로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논산시의 농가 수 및 농가인구는 1990~1999년 동안 점점 감소하다가 2000년에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논산시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농가 수의 비중은 1990년의 45.4%에서 2000년의 31.6%로 낮아졌다<표 4-8>.

그림 4-4. 논산시의 위치도



표 4-7. 논산시의 인구 추이

단위: 호, 명

연도	세대	인구		
		계	남자	여자
1970	42,889	238,403	117,531	120,872
1980	41,400	207,312	104,472	102,840
1990	44,161	187,447	94,394	93,053
2000	47,811	142,828	71,410	71,418
2002	57,918	167,974	83,895	84,079

표 4-8. 논산시의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호, 명

연도	농가	농가인구		
		계	남	여
1990	20,051	79,181	39,230	39,951
1995	16,732	57,596	28,538	29,058
1999	14,142	43,937	20,787	23,150
2000	15,106	46,058	22,757	23,284

채운면은 조선 시대에는 은진현이었으며, 인구(2003년 4월 현재)는 3,632명이고, 면적이 19.74km²이며, 행정구역은 25개 리(76개 반)로 구성되어 있다. 채운면은 논산시의 남서 하단부에 위치하며 강경읍과 인접해 있으며 수리 안전율 100%의 한해 없는 전천후 농업지역이다. 논산과 강경읍을 연결하는 23번 국도가 채운면을 가로지르고 있다<그림 4-5>.

채운면의 인구구성(2003. 7. 31 현재)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채운면의 인구변화 추이(1970~2003년)를 살펴보면, 세대 수는 약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서 인구는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기간에 세대 수는 1,541세대에서 1,301세대, 인구수는 9,078명에서 3,599명으로 감소하였다<표 4-9>.

그림 4-5. 채운면의 위치도



표 4-9. 채운면의 인구 추이

단위: 호, 명

연도	세대	인구 계	남	여
1970	1,541	9,078	4,384	5,081
1980	1,426	7,081	3,508	3,573
1990	1,321	5,280	2,591	2,689
2000	1,328	3,958	1,988	1,970
2003	1,301	3,599	1,808	1,791

2.2. 야화2리의 변화

야화2리는 채운면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전형적인 평야마을이다. 야화2리는 1967~68년도에 경지정리를 완료했으며, 경지의 대부분이 논이며 밭은 대지와 주택에 붙어 있는 채마밭이 전부이다.

2.2.1. 인구구조의 변화

야화2리의 인구수는 1985년의 232명에서 2003년 112명으로 51.7%가 감소하였다. 야화2리의 가구 수는 1985년의 51호에서 2003년의 46호로 5호가 감소하였다.

1985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에 야화2리에서 출생한 사람 수는 11명인데 반해서 사망한 사람의 수는 30명으로 나타났다. <표 4-10>에는 사망자의 사망 당시의 연령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표 4-10. 야화2리 사망자의 연령 분포, 1985-2003

단위: 명

구분	1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계
사망자수	1	2	1	4	5	11	5	1	30

<표 4-11> 및 <그림 4-6>에는 야화2리의 연령 구성의 변화가 표와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야화2리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985년에는 6.5%였는데 2003년에는 32.1%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서 14세 미만 인구의 비율은 1985년의 32.8%에서 2003년의 13.5%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4-11. 야화2리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의 변화, 1985-2003

단위: 명, %

구분	시 기	
	1985	2003
0~ 4	18(7.8)	1(0.9)
5~ 9	29(12.5)	7(6.3)
10~14	29(12.5)	7(6.3)
15~19	21(9.1)	6(5.4)
20~24	11(4.7)	5(4.5)
25~29	14(6.0)	1(0.9)
30~34	12(5.2)	4(3.6)
35~39	14(6.0)	4(3.6)
40~44	11(4.7)	5(4.5)
45~49	13(5.6)	8(7.1)
50~54	9(3.9)	8(7.1)
55~59	18(7.8)	7(6.3)
60~64	18(7.8)	13(11.6)
65~69	5(2.2)	8(7.1)
70세 이상	10(4.3)	28(25.0)
계	232(100.0)	112(100.0)

그림 4-6. 야화2리의 연령 구성의 변화, 1985-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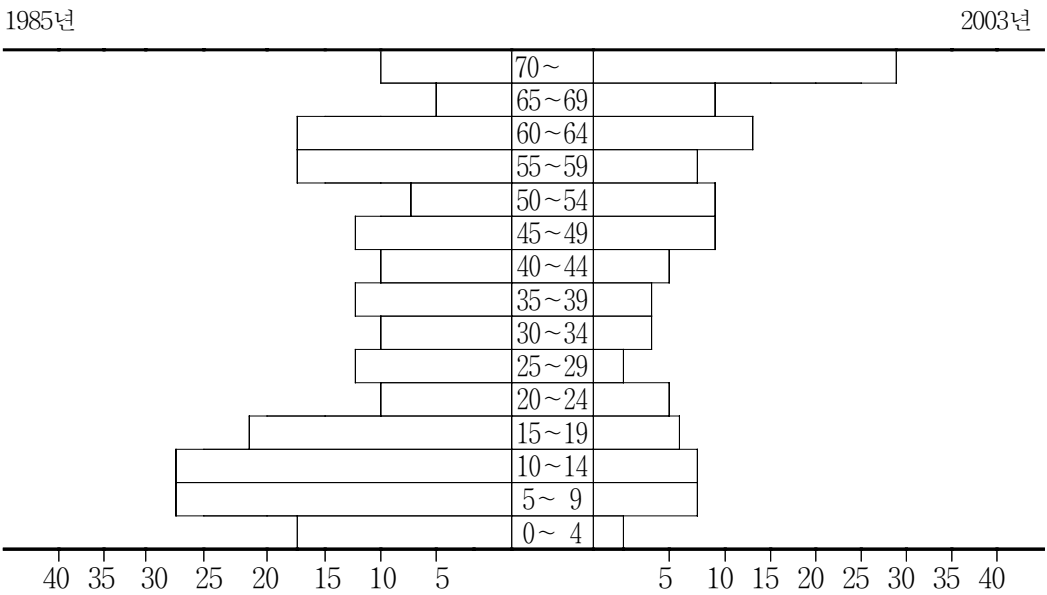


표 4-12. 야화2리 전출자의 연령별 분포, 1985-2003

단위: 명, %

구 분	인구수(%)
0 ~ 9세	21(9.9)
10 ~ 19	61(28.6)
20 ~ 29	67(31.5)
30 ~ 39	21(9.9)
40 ~ 49	15(7.0)
50 ~ 59	9(4.2)
60 ~ 69	11(5.2)
70세 이상	7(3.3)
계	213(100.0)

1985년부터 2003년 사이에 야화2리에서 전출한 사람은 총 213명으로 나타났다. 마을에서 전출한 사람들의 주요 전출 목적은 취업이나 자녀의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출자의 전출 당시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표 4-12>,

20대(31.5%), 10대(28.6%), 30대(9.9%) 등의 순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야화2리 전입자의 연령 분포, 1985-2003

단위: 명, %

구분	인구 수
0 ~ 9세	20(16.8)
10 ~ 19	15(12.6)
20 ~ 29	34(28.6)
30 ~ 39	18(15.1)
40 ~ 49	11(9.2)
50 ~ 59	10(8.4)
60 ~ 69	10(8.4)
70세 이상	2(1.7)
	119(100.0)

1985년부터 2003년 사이에 야화2리로 전입한 사람은 총 119명으로 나타났다. 야화2리로 전입한 사람들의 주요 전입 목적은 단순거주, 요양, 취업 등으로 나타났다. 전입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표 4-13> 20대(28.6%), 0~9세(16.8%), 30대(15.1%), 10대(12.6%) 등의 순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20~30대 연령층의 전입인구가 많은 것은 군 입대 및 제대 전·후 시기에 임시로 전입하는 사람(남자)이 많았고, 마을 밖에 취업해 있으면서 값싼 주거지를 찾아서 마을로 전입하는 젊은 층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985년부터 2003년 사이에 이루어진 야화2리의 전입·전출자 수를 합산해보면, 전출자 수가 전입자 수에 비해서 94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2.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생활의 변화

먼저 야화2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야화2리의 가족 형태는 단독가구가 1985년의 2.1%에서 2003년의 28.3%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1세대 가족의 비율도 1985년의 18.7%에서 2003년의 39.1%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서 2세대 가족은 1985년의 50.0%에서 2003년의 10.9%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3세대 이상 가족은 1985년의 29.2%에서 2003년의 21.7%로 약간 감소하였다. 단독가구는 주로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 홀로 남아 있는 노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에는 야화2리의 가구원수별 가구 수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크게 증가했는데 반해서 3인 이상의 가구는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야화2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985년의 4.5인에서 2003년의 2.4인으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야화2리의 가족구조의 특징은 노인단독 또는 노인 부부 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4. 야화2리의 가족 형태의 변화, 1985-2003

단위: 빈도, %

가 족 형 태	시 기	
	1985년	2003년
단 독	1(2.1)	13(28.3)
1세대	9(18.7)	18(39.1)
2세대	24(50.0)	5(10.9)
3세대 이상	14(29.2)	10(21.7)
	48(100.0)*	46(100.0)

* 기타 가족 유형(3가구)은 제외함

표 4-15. 야화2리의 가구원수별 가구 수 변화, 1985-2003

단위: 빈도, %

가 구 원 수	시 기	
	1991년	2003년
1인	1(2.0)	13(28.3)
2인	11(21.6)	18(39.1)
3~4인	15(29.4)	7(15.2)
5인 이상	24(47.0)	8(17.4)
계	51(100.0)	46(100.0)
평 균	4.5인	2.4인

그리고 야화2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조직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야화2리에는 대동계와 같은 지연집단, 상사계나 친목계와 같은 각종 이익집단들이 1986년에는 13개 있었는데 마을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2003년에는 7개로 감소하였다. 그간에 상사 관련 이익집단이 2개가 감소했으며 새마을영농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딸기를 재배하는 마을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딸기작목반이 새로 결성되었으며,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1987년에 노인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야화2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생활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4-16>.

야화2리의 농가율은 1985년 71.7%에서 2003년의 34.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렇게 비농가 비율이 높은 이유는 비농업취업가구가 크게 증가했으며 노령으로 인해서 농지를 임대한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야화2리의 농가 중에서 전업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의 73.7%에서 2003년의 62.5%로 줄었다.

표 4-16. 경제 활동에 따른 가구 구분(야화2리)

단위: 호

구분		시 기	
		1985	2003
총 가구수		51	46
농가	소 계	38	16
	전업농 겸업농	27 11	10 6
비농가	소 계	13	30
	비농업취업가구	8	19
	농업노동가구	3	0
	농지임대가구 기타가구	2 0	6 5
농가율(%)		71.7	34.8
전업농가 비율*(%)		73.7	62.5

*농가호수에 대한 비율임

3. 금산군 남이면 대양2리: 산간농촌

3.1. 금산군 및 남이면의 변화

금산군은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국토의 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금산군의 인구(2002. 12. 31 기준)는 61,704명이고, 면적이 576km²이며, 행정구역은 1개 읍 9개 면(面)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산군은 서북쪽으로는 대전광역시와 논산시에 인접해 있고, 남으로는 전북 완주군과 무주, 진안이 펼쳐 있으며, 동으로는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이 맞닿아 있다<그림 4-7>.

금산군의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2002년)이 15.0%나 된다. 금산군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세대 수는 지난 30년간 약간은 줄어들었으나 거의 변화가 없다가 최근에는 약간 증가하고 있다. 금산군의 인구수는 10년 단위로 약 2만 명 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그림 4-7. 금산군의 위치도



금산군의 출생과 사망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에는 출생이, 1997년에는 사망이 약간 높았으나 크게 차이는 없는데 반해, 2000년에는 출생이 사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4-18>.

금산군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표 4-19>, 1995년에는 전입이 전출보다 약간 높았으나 그 후 전출이 전입보다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충남도내 보다는 다른 대도시나 도로 나가는 비율이 두 배나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1997년의 전입과 전출이 높게 나타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동인구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표 4-17. 금산군의 인구변화 추이

단위: 세대, 명

연도	세대	인구		
		계	남	여
1970	20,490	120,462	60,245	60,217
1980	20,146	104,001	52,786	51,215
1990	19,607	84,078	42,817	41,261
2000	22,478	64,785	32,854	31,931
2002	22,510	61,704	31,338	30,366

* 자료: 금산군, 금산군통계연보, 해당 연도.

표 4-18. 금산군의 출생 및 사망 추이

단위: 명

연도	출생자 수	사망자 수
1995	845	828
1997	719	768
2000	917	765

* 자료: 금산군, 금산군통계연보, 해당 연도.

그리고 금산군의 농가 및 농가인구를 살펴보면, 1980년에는 농가 수가 14,580호, 농가인구가 75,080명이었는데 2000년에는 농가 수는 9,624호, 농가 인구 26,743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000년의 농가인구는 1980년에 비해 1/3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농가인구수 중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이면은 1914년에 남동면과 남서면이 합병되어 탄생되었다. 남이면의 인구(2003. 1. 1 현재)는 2,515명이고, 면적은 98.19km²이며, 행정구역은 20개 리(73개 반)로 구성되어 있다. 남이면에는 국도13호, 군도1호 및 군도11호, 지방도 635호 등의 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남이면의 인구구성(2003. 8. 1 기준)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5.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이면의 최근 10년(1993~2002년)간 인구 감소 추이를 살펴보면<표 4-20>, 인구수가 1993년의 3,871명에서 2002년의 2,51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이면에는 고령층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해마다 사망자가 증가하여 인구의 자연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9년부터 남이면의 인구 감소율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19. 금산군의 인구이동

단위: 명, %

연도	총 이동				도내				시도간				순이동	이동률
	전입	이동률	전출	이동률	전입	이동률	전출	이동률	전입	이동률	전출	이동률		
1995	11,149	15.7	10,046	14.2	2,643	3.7	2,574	3.6	8,506	12.0	7,472	10.6	1,034	1.5
1997	12,446	17.7	14,348	20.1	1,899	2.7	1,909	2.7	10,547	15.0	12,437	17.7	-1,892	-2.8
2000	7,189	10.6	7,989	11.8	2,026	3.0	2,073	3.1	5,163	7.6	5,916	8.7	-753	-1.1

* 자료: 금산군, 금산군통계연보, 해당 연도.

3.2.1. 인구구조의 변화

대양2리의 인구수는 1985년의 182명에서 2003년 42명으로 76.9%가 감소하였다. 그간의 연평균 인구 감소율은 8.50%로 나타났다. 대양2리의 가구수는 1985년의 50호에서 2003년의 26호로 24호가 감소하였다.

1985년부터 2003년까지 대양2리에서 출생한 사람 수는 21명인데 반해서 사망한 사람 수는 31명으로 나타났다. <표 4-21>에는 사망자의 연령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사망자의 연령 분포는 60대 이상(93.5%)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및 <그림 4-9>에는 대양2리의 연령 구성의 변화가 표와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대양2리 인구는 절대인구의 감소 속에서도 인구의 노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985년에는 14.8%이었는데 2003년에는 30.9%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서 14세 미만 인구의 비율은 1985년의 24.2%에서 2003년의 4.8%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4-21. 사망자의 연령 분포(대양2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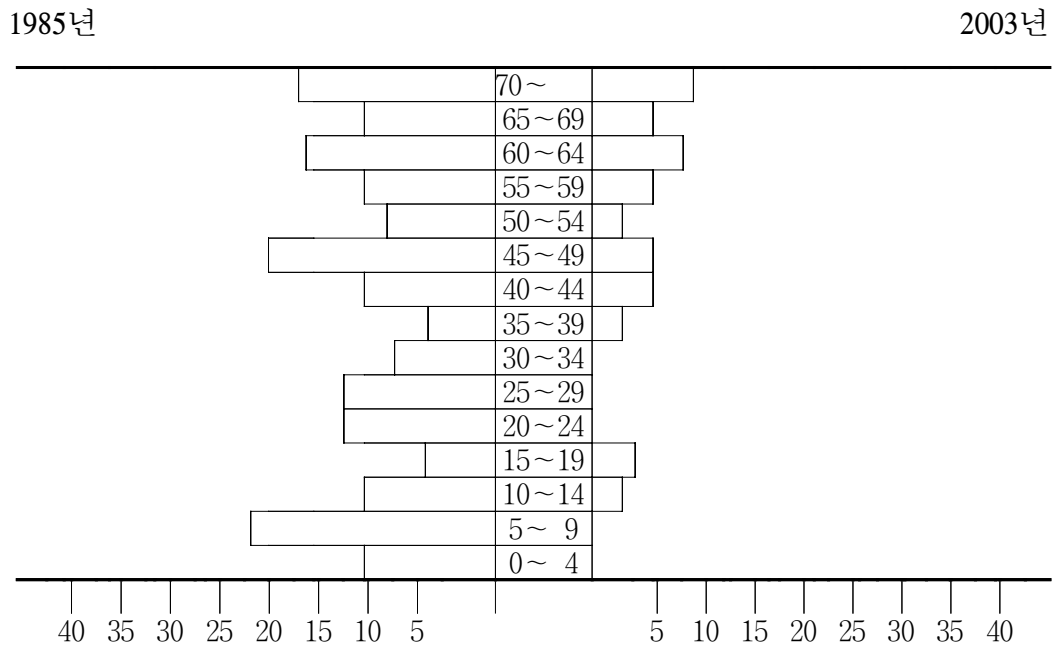
구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계
인구 수	1	0	2	10	9	9	31

표 4-22.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의 변화(대양2리)

단위: 명, %

구분	시 기	
	1985	2003
0 ~ 4	12(6.6)	0
5 ~ 9	22(12.1)	0
10 ~ 14	10(5.5)	2(4.8)
15 ~ 19	7(3.8)	3(7.1)
20 ~ 24	13(7.2)	0
25 ~ 29	13(7.2)	0
30 ~ 34	9(4.9)	0
35 ~ 39	6(3.3)	2(4.8)
40 ~ 44	10(5.5)	4(9.5)
45 ~ 49	20(11.0)	5(11.9)
50 ~ 54	8(4.4)	2(4.8)
55 ~ 59	11(6.0)	5(11.9)
60 ~ 64	14(7.7)	6(14.3)
65 ~ 69	11(6.0)	4(9.5)
70세 이상	16(8.8)	9(21.4)
계	182(100.0)	42(100.0)

그림 4-9. 인구의 연령 구성 변화, 대양2리, 1985-2003



1985년부터 2003년 사이에 대양2리에서 전출한 사람은 총 186명으로 나타났다. 마을에서 전출한 사람들의 주요 전출 목적은 자녀의탁, 취업, 단순 거주 등으로 나타났다. 전출자의 전출 당시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표 4-23>, 10대(24.2%), 20대(17.7%), 0~9세(14.6%), 70대 이상(11.3%), 30대(11.3%) 등의 순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1985년부터 2003년 사이에 대양2리로 전입한 사람은 총 49명으로 나타났다. 대양2리로 전입한 사람들의 주요 전입 목적은 단순거주, 요양, 취업 등으로 나타났다. 전입자의 전입 당시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표 4-24>, 20대(44.9%), 10대(14.3%), 60대(10.2%), 50대(8.2%) 등의 순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1985년부터 2003년 사이에 이루어진 대양2리의 전입·전출자 수를 비교해보면, 전출자 수가 전입자 수에 비해서 137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전출자의 연령별 분포, 대양2리, 1985-2003

단위: 명, %

구 분	인구수(%)
0~ 9세	27(14.6)
10~19	45(24.2)
20~29	33(17.7)
30~39	21(11.3)
40~49	10(5.3)
50~59	15(8.1)
60~69	14(7.5)
70세 이상	21(11.3)
계	186(100.0)

표 4-24. 전입자의 연령 분포, 대양2리, 1985-2003

단위: 명, %

구분	인구 수
0 ~ 9세	3(6.1)
10 ~ 19	7(14.3)
20 ~ 29	22(44.9)
30 ~ 39	2(4.1)
40 ~ 49	3(6.1)
50 ~ 59	4(8.2)
60 ~ 69	5(10.2)
70세 이상	3(6.1)
	49(100.0)

3.2.2.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생활의 변화

먼저 대양2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양2리의 가족 형태는 단독가구가 1985년의 6.0%에서 2003년의 53.8%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1세대 가족의 비율도 1985년의 14.0%에서 2003년의 26.9%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서 2세대 가족은 1985년의 42.0%에서 2003년의 7.7%로 크게 감소하였다. 3세대 이상 가족도 1985년의 38.0%에서 2003년의 11.6%로 크게 감소하였다. 단독가구는 주로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 홀로 남아 있는 노인가구와 신앙생활이나 요양 목적으로 전입한 사람들로 나타났다.

<표 4-26>에는 대양2리의 가구원수별 가구 수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크게 증가했는데 반해서 3인 이상의 가구는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대양2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985년의 3.6인에서 2003년의 1.6인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양2리의 가족구조의 특징은 단독가구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양2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조직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양2리에는 대동계와 같은 지연집단, 상사계나 친목계와 같은 각종 이익집단들이 1986년에는 24개가 있었는데 마을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2003년에는 9개로 감소하였다. 그간에 상사 관련 이익집단이 12개에서 4개로 감소했으며, 혼사 관련 이익집단은 3개에서 1개로, 친목 관련 이익집단은 7개에서 3개로 감소하였다. 새마을영농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유명무실한

표 4-25. 대양2리의 가족 형태의 변화, 1985-2003

단위: 빈도, %

가 족 형 태	시 기	
	1985년	2003년
단 독	3(6.0)	14(53.8)
1세대	7(14.0)	7(26.9)
2세대	21(42.0)	2(7.7)
3세대 이상	19(38.0)	3(11.6)
	50(100.0)	26(100.0)

표 4-26. 대양2리의 가구원수별 가구 수 변화, 1985-2003

단위: 빈도, %

가 구 원 수	시 기	
	1985년	2003년
1인	3(6.0)	13(50.0)
2인	10(20.0)	9(34.6)
3~4인	22(44.0)	3(11.5)
5인 이상	15(30.0)	1(3.8)
계	50(100.0)	26(100.0)
평 균	3.6인	1.6인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딸기작목반, 고추작목반, 채소작목반 등은 결성된 후 몇 해 못 가서 해체되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1997년에 노인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대양2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생활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4-27>.

대양2리의 농가율은 1985년 90.0%에서 2003년의 73.1%로 감소하였다. 대양2리의 농가 중에서 전업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의 93.3%에서 2003년의 84.2%로 줄었다. 그간에 비농업취업가구는 3가구 생겼다.

표 4-27. 경제 활동에 따른 가구 구분(대양2리)

단위: 호

		구분	시 기	
			1985	2003
총가구수			50	26
농 가	소 계		45(5)**	19(8)**
	전업농		42	16
	겸업농		3	3
비농가	소 계		5	7
	비농업취업가구		0	3
	농업노동가구		1	0
	농지임대가구		3	2
	기타가구		1	2
농가율(%)			90.0	73.1
전업농가 비율*(%)			93.3	84.2

* 농가호수에 대한 비율임.

** () 안의 수는 농사철에만 마을에 들어와 영농을 하는 출입농 숫자임(전체 숫자에서
는 제외).

제 5 장

선진국의 농촌사회 변화 동향

1. 일본²

1980년 이래로 일본 농촌(군부)인구의 감소 속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에서 군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40~1960년에는 25.6%가 줄었으나, 1980~2000년에는 불과 2.5% 밖에 줄지 않았다. 1975년 무렵을 기점으로 대규모적인 이농은 일단락되고, 그 후부터는 U-turn 혹은 J-turn migration 현상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대도시권에의 인구유입이 비교적 완만했지만, 1980년대 초반에는 3차 산업 비중이 증가하고 정보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금융, 정보 등 제 기능이 동경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다시 인구가 크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부락 내 총가구 수 중 농가율이 50% 미만인 부락이 1980년의 34%에서 1990년에는 47%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 평야지역 농촌부락의 농가율은 30~50%, 중산간지역 농촌부락의 농가율은 50~70% 정

² 일본에 관한 자료는 『農村工學研究』, 『村落社會研究』, 『農林金融』, 농림수산성의 『농림센서스』, 인터넷 자료, 일본농촌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도가 되었다. 그 결과 생활공동체로부터 지역사회의 자원 관리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부락에 있어서 농가 수의 감소는 지역자원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사회의 혼주화는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농촌(군부)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에는 21.8%이었지만 2030년에는 32.8%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노령화가 도시 부문에 비해서 20년 이상 빠르고 농업노동력의 노령화로 인해서 휴·폐경 농지가 증가하고 농업·농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표 5-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농가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의 20.0%에서 2000년에는 28.6%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30.9%, 2020년에는 34.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역농업에 대한 주민의 전망은 젊은이가 부족해서 고령자 중심의 농업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도시근교농촌에서는 ‘의욕 있는 사람에게 농지가 모여 발전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고, 중·산간지역에서는 ‘농지의 황폐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일본 농촌사회는 쇠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체적인 상황에 있다. 농촌 지역사회가 정체된 원인으로는, ① 일본경제가 공업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여 도농 간 지역 격차가 심화되었음, ② 외국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해서 식량자급률이 대폭 낮아짐, ③ 생활 체계의 변화에 따라 종래보다

표 5-1. 농가인구의 변화 추이 및 전망(일본)

단위: 천명, %

구 분	1990	2000	2010	2020
농가인구	17,296	13,458	10,424	7,735
농가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20.0	28.6	30.9	34.8

* 자료: 農林金融(2001년 8월호: 462~477).

한층 더 많은 현금 수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촌주민들은 지역 내에서 적정 규모의 현금수입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음, ④ 농촌의 전통적인 문화가 부정되어 농촌주민을 결속하는 연대성이 약화됨 등을 들 수 있다.

전환기 농촌 지역사회 변화의 핵심은 개인화와 이질화라고 할 수 있다. 개인화란 종래 가(家)의 논리로 통일되어 있던 농가세대원의 자율적 행동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질화란 등질적인 농가세대로 구성되어 있던 농촌 지역사회가 혼주화 등에 따라서 다양한 구성원의 지역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 변동의 방향성으로는 광역지역사회와 지역복합사회를 들 수 있다. 광역지역사회는 농촌주민들의 생활권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 복합사회는 이질적인 개인이나 집단이 기능적 연관성으로 결합하고 분업이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재편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지역사회의 이질화가 진행되고 주관적으로 무관심해진 이웃에게도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자치활동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역사회는 시민으로서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자각하고 지역성과 각종 공동목표를 가지며 구성원 상호 간에 신뢰감이 있는 개방된 사회를 의미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 가꾸기, 축제나 이벤트, 스포츠, 문화활동, 방범·방재·교통안전, 건강증진, 노인복지활동, 경관 및 환경의 보전, 생활 개선, 인사운동 등이다.

그리하여 1990년대 이래로 농촌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 도시와 공생하는 농촌, 환경보전형 농업 생산, 자발적 개인의 연결망으로서의 사회조직의 형성, 자유스런 개인의 생활 집단으로서의 가족 등이 중시된다. 즉, 지역사회운영의 핵심은 다양한 집단의 지도자 연합이라고 볼 수 있다.

2. 미국

미국은 농촌의 개념 정의를 정책이나 사업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해 왔다. 예를 들면, 농촌 지역을 ‘not an urban area’, ‘not an urbanized area’, ‘non-metropolitan areas’ 등으로 개념정의하고 있다. 미국 통계국에 의하면, ‘urban area’는 인구가 2,500명 이상 밀집하여 사는 지역을, ‘urbanized area’는 인구가 50,000명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그런데 농촌사회학자들이 가장 즐겨 쓰는 개념인 ‘non-metropolitan area’는 농촌의 개념을 ‘county’인구가 ‘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분한다. 즉, ‘metropolitan area’는 인구 50,000명 이상의 중심도시가 1개 이상이거나, 인구 50,000명 이상의 ‘urbanized area’이 있거나 지역의 총인구가 100,000명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그러므로 ‘non-metropolitan area’는 이러한 ‘metropolitan area’ 이외의 지역을 말하며, 인구 50,000명 이상의 도시가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전체 인구에서 ‘non-metropolitan area’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2000년)은 20%(인구: 5,500만 명) 정도로 나타났다.

오늘날 농촌지역(2,305 counties)의 8개 중의 7개 counties는 제조업, 서비스업과 같은 비농업 부문이 우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농촌주민들의 90%가 비농업 부문의 일을 하고 있고, 농가소득의 절반 이상이 비농업 부문에서 나오고 있다(Castle 2001).

1960년대 이래의 미국 농촌지역(non-metropolitan area)의 인구변화 동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Castle 2001; Freshwater 2000; McGrannahan and Beale 2002; Wimberley et al. 1989).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농촌에서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농촌인구가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는 농촌의 경제적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분야의 직업이 감소하

면서 고학력의 젊은 연령층의 전출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 대도시의 주거비용이 높으므로 주변 농촌에 거주하면서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1990~2000년 기간 농촌지역(non-metropolitan counties)의 약 1/4 정도만 인구가 감소하고 나머지는 증가 또는 정체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기간에 농촌지역의 인구가 10% 이상 증가하였다.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전회(non-metropolitan population turnaround)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도시 주변 지역의 성장이 인근 농촌 지역의 인구성장으로 이어짐, ② 도시공업 부문에서의 노동수요가 정체됨, ③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서 기존의 농촌주민들의 이촌이 줄어들고 도시민들의 유입이 증가함, ④ 레크리에이션, 경치, 기후 측면에서 유리한 지역에 여행자 및 은퇴자들이 집중됨, ⑤ 도시와 농촌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농촌의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함, ⑥ 농촌 지역에서의 서비스업 분야 취업기회가 증가함, ⑦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결합된 도시-농촌의 균형화 과정(progression toward equilibrium)으로 파악함.

미국농촌에 있어서 인구 감소지역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짐, ② 인구밀도가 낮음, ③ 어메니티 수준이 낮음(기후, 지형, 호수, 연못 등을 기준으로 함), ④ 주로 농업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함.

그리고 농업 및 천연자원 관련 산업에서의 취업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농촌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촌노인인구는 점점 더 인종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노인들은 과거 세대에 비해서 더 교육받고, 더 건강하고 재정 상태도 아주 건실한 경향이 있다.

3. 유럽

유럽에서는 1970~1980년대 이래로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전회(non-metropolitan population turnaround) 현상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Bolton and Chalkley 1990; Boyle and Halfacree eds. 1998). 1970년대를 전후해서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 같은 여러 국가에서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또는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전회(non-metropolitan population turnaround)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 이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다(Boyle and Halfacree eds. 1998).

영국(연방국가 포함)의 예를 들어 보면, Boyle(1995)는 역도시화의 흐름은 거대도시 중심부에서 농촌 지역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대도시 주변 지역, 중소도시 등을 거쳐서 이루어짐을 발견하였다. Harper(1991)는 환경적 요인들이 노인들을 농촌 지역으로 유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Bolton과 Chalkley(1990)는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전회의 원인으로 ① 자족적이고 비물질적인 생활양식으로 인한 주거선호의 변화, ②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한 산업의 지역 분산, ③ 정부의 지역정책, ④ 국내 및 국제 경제구조의 재편 등을 지적하였다. Halliday와 Coombes(1995)는 역도시화의 주요 원인으로 더 좋은 생활양식, 아름다운 경치, 쾌적한 환경, 낮은 집값 등을 들었다.

Kontuly(1998)는 유럽 각국의 사례를 종합하여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경제 주기적 요인, ② 경제구조적 요인, ③ 공간적·환경적 요인(집적의 불경제, 주택의 이용가능성 또는 비용, 환경적 쾌적성, 관광 및 여가생활의 증대), ④ 사회경제적·사회문화적 요인(주거선호의 변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인구구성의 변화 등),

⑤ 정부의 정책(지역균형발전, 농촌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⑥ 기술혁신(교통, 통신의 발달).

4.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를 전후해서 농촌인구의 감소속도가 완화된거나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촌과 도시 지역 간의 인구이동은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결합된 균형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의 이질화와 혼주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가꾸기와 같은 새로운 지역사회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여 지역이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다.

제 6 장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과 전망

1.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 동향과 전망

여기서는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1985~1990년 기간을 정점으로 하여 인구 감소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읍부의 인구는 연평균 1.5%씩 증가하였다. 면부의 인구는 1980~1985년 기간에 연평균 4.3%씩 감소하여 감소율이 최고조에 도달한 이후 인구 감소율이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사례 연구지역의 조사마을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인구 감소가 완화되기 시작하여 최근에 들어서는 정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가 완화되어 지역에 따라서 역도시화 내지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선회를 나타내는 것은 1970~1980년대를 전후에서부터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가 과거와 같이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가정했을 때에는 인구전망치가 실제치보다 낮았다(최양부 1984). 김정덕(2003)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19.9%에서 2010년의 17.2%, 2020년 14.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의 14.7%에서 2010년의 21.4%, 2020년의 25.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촌인구의 변화 전망에 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응답자들의 3/4 이상(20명 중에서 16명)이 앞으로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가 더욱 둔화 내지 안정화되고 대도시 근교농촌 및 경치가 수려한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대다수 응답자들(20명 중의 18명)은 현재의 농촌인구의 구조, 평균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정체 등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적어도 20~30년 동안은 농촌인구의 노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앞으로 고속교통망이 더욱 확충되고, 주5일근무제가 보편화되며, 국가균형발전법, 지방분권특별법이 시행되고,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친 환경적인 생활양식이 선호되고, 베이비 붐 세대 연령층의 직장은퇴가 본격화되면 도시인구의 농촌유입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는 앞으로 더욱 둔화 내지 안정화되고, 지역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는 농촌 지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늘어날 전망이 많은 농촌 지역은 대도시와 근접한 곳, 환경, 관광, 여가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이나 관광 등의 측면에서 별다른 장점이 없고 교통이 불편한 산간지역에서는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마을이 소멸되는 사례도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활동의 변화 전망

앞으로 농촌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구조의 변화에 있어서는 1인 단독가구나 부부만의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3세대 이상이 동거하는 가족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일반농촌의 인구 노령화, 근교농촌의 혼주화 경향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3개 사례 마을의 2010년 및 2020년의 가구 전망을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 시도해 보았다: ① 2010년 및 2020년의 남녀의 평균수명을 적용하여 대상자의 생존 가능성을 판단함, ② 인구 전·출입은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상호 비슷하다고 가정함. 그리하여 2010년의 가구 수를 전망해 보면, 도시근교(대원1리) 202가구, 평야(야화2리) 46가구, 산간(대양2리) 26가구로 추정된다. 그리고 2020년의 가구 수 전망해 보면, 도시근교(대원1리) 194가구, 평야(야화2리) 30가구, 산간(대양2리) 20가구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구 전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중산간지역의 농촌마을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적응하여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연환경에서 별다른 매력이 없고 교통이 아주 불편한 일부 산간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 자연부락이 소멸하는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조직의 변화에 있어서는, 마을 단위에서 운영되는 사회조직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는 농촌마을 사회조직의 변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가 심하고 인구구조가 노령화되어 있는 마을일수록 사회조직 수의 감소

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마을의 혈연 및 지연적 사회조직은 마을 단위의 경제적 협동과 같은 기능은 다소 축소되겠으나 사회·문화적 기능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회조직 구성원의 공간적 분포가 인근 부락, 면내, 군내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마을 내의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경우 사회조직이 선택할 수 있는 양식은 인근 마을, 면내, 군 단위에서 회원을 보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대중교육의 확대, 영농기술의 발달, 영농의 전문화, 교통 및 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농촌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조직의 공간적 분포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업의 상업화 경향으로 말미암아 품목별 생산자 조직, 농산물 유통조직 등과 같은 전문화된 이익집단적 사회조직의 결성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 관련 사회조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노인회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되고 농촌 주민의 노령화가 점점 더 가속화됨에 따라서 노인 관련 사회조직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제생활의 변화에 있어서는, 농가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위탁영농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근로 능력이 아주 약화된 노령농가의 농지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젊은 농가에게 임대되는 경우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농기계의 접근이 불리한 한계농지의 휴·폐경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는 사례조사마을인 대양2리(산간농촌)에서 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근교 및 평야지역 농촌의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농촌주민의 농외취업 노력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농촌 지역사회는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여 다양하게 지속·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농촌 지역사회 변화의 지역별 차별성

여기서는 “이러한 변화는 대도시와의 근접성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낼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

전국적인 자료의 동부·읍면부 비교, 사례 연구지역의 심층조사, 선행 연구 검토 등을 통해서 볼 때,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는 대도시와의 근접성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교농촌지역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질화, 혼주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서울 근교농촌지역인 파주시 조리읍 대원1리의 경우, 비농가의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그들의 직업도 다양해지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10여명)가 거주하며 단순주거 목적의 전입자도 증가하고 있다. 단순주거 목적의 전입인구는 마을 주민과 교류가 거의 없다. 그리고 도시근교농촌에는 마을 주민과 여러 가지 관계(주로 혈연)로 연계된 외지사람들의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증가하고 있다. 마을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 및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고 아파트주민과 토착주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평야지역은 주거 목적의 전입자가 다소 증가하고 기존 주민의 농외취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논산시 채운면 야화2리의 경우, 인구가 1985년 232명에서 2003년 112명으로 감소했으나 가구 수는 같은 기간에 51가구에서 5가구가 줄어서 46가구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인구노령화, 묘지난 등으로 인해서 상례를 위해서 장례예식장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마을 주민 중에서 마을 인근의 공장이나 사무소 등에 취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야화2리의 경우, 농외취업가구가 1985년 8가구에서 2003년에는 19가구로 증가했다. 평야지역이라는 특성과 청장년 농업인의 부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젊고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게 농작업이 집중되고 있다.

산간지역은 신앙생활이나 요양을 위해서 전입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문화·교육 여건의 미비로 인해서 인근 중소도시로 이사를 가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근 경작을 하는 출입농이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정착하고 있다. 휴·폐가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생활 대비, 지가 상승 기대 등으로 인해서 주택 소유주가 팔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회원의 절대 규모가 이촌, 사망 등으로 감소하여 사회조직 자체가 해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금산군 남이면 대양2리의 경우, 마을 인근까지 도로망이 정비되고 깨끗한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이 상당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인구전입은 앞으로도 어느 정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이면 단위로 매월 운영되는 ‘지역발전협의회’가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8·15면민체육대회 및 인삼제, 남이면민의 날 운영 등도 애향심 고취 등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지역 전통문화 활성화는 분산된 지역 주민을 재결집하는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연합회 등의 젊은 층이 중심이 되어 어려운 내 고향 농촌을 살리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국민에게 금산이 청정지역으로 인식되어 옹기수집 전문인, 금속조각가, 목공예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시 찾는 지역으로 부상됨으로써 지역사회가 소멸되지 않고 다시 부활하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농촌지역사회가 개인화와 이질화가 심화되어 외견상으로 변화의 방향성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여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사회조직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대도시와의 근접성 정도는 인구의 전출입, 취업기회, 사회·문화·복지시설 등에 있어서 상이한 여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인정받는 시대가 성큼 다가옴에 따라서 산간농촌지역의 주거지로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 7 장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주요 문제의식은 ①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농촌인구가 안정 또는 증가할 것인가?, ② 장래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활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③ 또한 이러한 변화는 대도시와의 근접성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낼 것인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농정의 강조점이 농업 생산에서 농업인 및 농촌 지역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 문제가 농정의 핵심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고양하고 농촌주민들의 복지를 크게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촌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가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전망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발전의 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정립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①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② 국내·외 농촌의 사례조사, 인구추계 검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21세기 초반에 있어서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이다.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종합적인 연구, 인구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추세를 정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전망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몇몇 선행 연구들은 과거의 인구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농촌인구를 전망하고 있지만 주로 인구규모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전망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는 못했다.

이 연구에 있어서 농촌이란 읍·면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은 2020년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는 인구구조,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활동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를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활동의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만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기존 자료 조사, 관련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및 선행 연구의 인구추계 결과에 대한 검토, 전문가 의견 조사, 사례 지역 현지조사, 선진국의 농촌 지역사회 변화 동향 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활동, 공간구조, 주민의 의식구조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종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 인력과 장기적인 연구기간, 그리고 다 학문적인 협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한된 연구 인력 및 기간을 감안하여 농촌 지역사회 변화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에 관한 사회학적 관점으로는 기능적 관점, 갈등적 관점, 인간생태학적 관점 등이 있다. 인간생태학적 관점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농촌 지역사회의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준거 틀로 활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저 잠재성장기(국제연합 분류의 경우는 5단계)에 들어서 출산율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2020년 중반 경에는 출산율이 사망률을 밑돌면서 전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농촌인구의 경우는 출산율이 사망률을 밑돌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추세에 비해서 20년 이상 앞서서 인구구조 변천이 진행되어 이미 저 잠재성장기(국제연합 분류의 경우는 5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촌인구는 이미 ‘저 잠재성장기’라는 안정기에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감소율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인구는 1960년의 17,992천 명에서 2000년의 9,342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농촌인구의 비율은 1960년의 72.0%에서 2000년의 20.3%로 감소하였다.

연령구조는 1960년에는 도시와 농촌간의 연령구조가 상당히 유사했으나 2000년에는 40대 이하 연령층은 도시가 농촌보다 그 비중이 높고 50대 이상(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은 농촌이 도시보다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장년층의 도시 이주로 인해 농촌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5년부터 2000년까지 35년 동안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유입된 순 이동인구는 800만 명으로 연평균 32만 명씩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다.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도시인구의 증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농 인구가 도시인구 증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도시인구의 자연증가가 도시인구의 증가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를 전후해서 농촌인구의 감소속도가 완화되거나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선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① 대도시 주변 지역의 성장이 인근 농촌 지역의 인구성장

으로 이어짐, ② 도시공업 부문에서의 노동수요가 정체됨, ③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서 기존의 농촌주민들의 이촌이 줄어들고 도시민들의 유입이 증가함, ④ 레크리에이션, 경치, 기후 측면에서 유리한 지역에 여행자 및 은퇴자들이 집중됨, ⑤ 도시와 농촌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농촌의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함, ⑥ 농촌 지역에서의 서비스업 분야 취업기회가 증가함, ⑦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결합된 도시-농촌의 균형화 과정(*progression toward equilibrium*)의 원인으로 인하여 인구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유럽의 경우는 Bolton과 Chalkley(1990)는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전환의 원인으로 ① 자족적이고 비물질적인 생활양식으로 인한 주거선호의 변화, ②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한 산업의 지역 분산, ③ 정부의 지역정책, ④ 국내 및 국제 경제구조의 재편 등을 지적하였고, Halliday와 Coombes(1995)는 역도시화의 주요 원인으로 더 좋은 생활양식, 아름다운 경치, 쾌적한 환경, 낮은 집값 등을 인구전환의 요인으로 들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농촌 지역사회의 이질화와 혼주화가 심화되는 가운데서 지역사회 가꾸기와 같은 새로운 지역사회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여 지역이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연구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인구 감소가 완화된기 시작하여 최근에 들어서는 정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가 완화된 지역에 따라서 역도시화 내지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전환을 나타내는 것은 1970~1980년대를 전후에서부터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경향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조사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농촌인구의 변화 전망을 보면, 응답자들의 3/4 이상(20명 중에서 16명)이 앞으로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가 더욱 둔화 내지 안정화되고 대도시 근교농촌 및 경치가 수려한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대다수 응답자들(20명 중의 18명)은 현재의 농촌인구 구조, 평균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정체 등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적어도 20~30년 동안은 농촌인구의 노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특히, 고속교통망이 더욱 확충되고, 주5일근무제가 보편화되며, 국가균형발전법, 지방분권특별법이 시행되고,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친 환경적인 생활양식이 선호되고, 베이비 붐 세대 연령층의 직장은퇴가 본격화되면 도시인구의 농촌유입은 더욱 늘어나고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는 둔화 내지 안정화될 것이고, 지역에 따라 인구의 증가세가 차이를 낳 것이며, 특히 대도시와 근접한 곳, 환경, 관광, 여가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곳이 두드러지게 인구의 증가가 발생할 지역이다.

농촌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지역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가족구조는 인구의 노령화, 근교농촌의 혼주화 경향 등의 이유로 1인 단독가구나 부부만의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인구 감소는 사회조직의 측면에서 마을 단위에서 운영되는 사회조직의 수를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촌마을의 혈연 및 지연적 사회조직은 마을 단위의 경제적 협동과 같은 기능은 다소 축소되겠지만 사회·문화적 기능은 더욱 중요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생활의 변화에 있어서는, 농가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위탁영농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즉, 근로 능력이 아주 약화된 노령농가의 농지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젊은 농가에게 임대되는 경우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대도시와의 근접성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낼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국적인 자료의 동부와 읍·면부 비교, 사례 연구지역의 심층조사, 선행 연구 검토 등을 통해서 볼 때,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는

대도시와의 근접성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교농촌지역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질화, 혼주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서울 근교농촌지역인 파주시 조리읍 대원1리의 경우, 비농가의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거주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다양해지고, 단순주거 목적의 전입자도 증가하고 있다. 단순주거 목적의 전입인구의 경우는 마을주민과 교류가 거의 없고, 또한 마을 주민과 여러 가지 관계(주로 혈연)로 연계된 외지사람들의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증가하고 있다. 마을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 및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고 아파트 주민과 토착주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평야지역은 주거 목적의 전입자가 다소 증가하고 기존 주민의 농외취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마을 주민 중에서 마을 인근의 공장이나 사무소 등에 취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야화2리의 경우, 농외취업가구가 1985년 8가구에서 2003년에는 19가구로 증가했다. 평야지역이라는 특성과 청장년 농업인의 부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젊고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게 농작업이 집중되고 있다.

산간 지역은 신앙생활이나 요양을 위해서 전입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문화·교육 여건의 미비로 인해서 인근 중소도시로 이사를 가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근 경작을 하는 출입농이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정착하고 있다.

지역의 대도시와의 근접성 정도는 인구의 전출입, 취업기회, 사회·문화·복지시설 등에 있어서 상이한 여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인정받는 시대가 성큼 다가옴에 따라서 산간농촌지역의 주거지로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 록

마을 조 사 표

* 마을 주소: 군(시) 면(구) 리(동) 부락
 이장(통장): (전화:)

1. 가구 및 인구 현황(2003년 8월 현재 기준)

1-1. 가구 수:

- 농가:
- 비농가:

1-2. 인구구조:

연령구분	남 자	여 자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 계			

1-3. 2001~2002년도 전출가구

가구주	사유	전출지역	전출 후 직업	농지처분

1-4. 2001~2002년도 전입가구

가구주	사유	전입 전 거주지역	전입 전 직업	비 고

1-5. 가구별 특이사항 파악(별도 기재)

2. 도로 및 교통 여건 현황

2-1. 도로

2-2. 대중교통

2-3. 차량 보유: 자가용()대, 트럭()대

2-4. 마을 주차장

3. 마을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는 공단과 공장 (명칭, 위치, 규모, 통근시간, 취업자 등)

4. 지가 및 노임

4-1. 지가(평당):

구 분	상	중	하
논 밭 임 야 대 지			

4-2. 노임(일당):

구 분	남 자	여 자	식사 및 간식 제공 등
모내기 벼 베기 일반 밭일 기타 농작업 비농업			

4-3. 기계 임작업료(200평당)

- 모내기:
- 경운, 정지:
- 방제:
- 수확:

5. 노인 관련 조직 현황

- 노인회(경로당):
- 각종 계:
- 기타:

6. 지역(마을)농업에서 노령 농업인의 역할 및 비중

7. 청년·장년층과 노령 농업인의 관계

8. 마을 대·소사에서 노령층의 역할

9. 노령 농업인이 농사일을 그만두는 시기, 이유

- 은퇴 시기:
- 주요 은퇴 이유:

10. 마을 지도력

10-1. 공식적 지도력

- 이장:
- 반장:
- 새마을지도자:
- 새마을부녀회장:
- 리·동 개발위원회 위원:

10-2. 비공식적 지도력

- 마을 유지:
- 기타:

11. 마을 및 마을 인근의 영농조직

- 작목반: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기타(농기계이용조직 등):

12. 품앗이 현황

- 작목:
- 연령 층:
- 추세:

13. 농지임차료 시세

- 논:
- 밭:
- 기타 특수 작물:

14. 주요 농산물(3~4 종류) 판매 방식

15. 마을인구의 노령화가 지역사회 생활에 미치는 영향

15-1. 농업생산

15-2. 사회생활

15-3. 생활환경

15-4. 기타

16. 마을의 휴경지 현황

- 면적:
- 휴경지 발생의 주요 원인:

1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신청자)

18. 특례노령연금(농어민연금) 수혜자

19. 기타 사항

abstract

Trend and Prospect of Rural Community Change: Centered around the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investigate the trend of rural community change; and 2) to suggest the prospect of rural community change, centered around the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The major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includ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the E-mail(or telephone) survey, and the field survey. Th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was conducted by investigating the data of relat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The E-mail(or telephone) survey was conducted by forty experts in order to collect the opinions of rural community change related specialists. The field survey was carried out targeting the residents of 3 villages to identify the trend of rural community change.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y, percentage, and mean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of E-mail and field surve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decreasing trend of rural population may be weakened or stabilized; 2) the proportion of single or a couple family may be increased; 3) the number of social organizations in rural villages may be decreased greatly; 4) the proportion of consignment farming may be increased more; and 5) the pattern of rural community change may become different depending on the various circumstances of the communities.

Researchers: Park Dae-Shik and Park Kyong-Cheol

E-mail Address: pds8382@krei.re.kr

참 고 문 헌

- 권태환. 1992. “인구변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사회』 2: 39-56.
- 경제기획원. 1963. 『1960 인구주택 국제조사 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금산군. 해당 연도. 『금산군 통계연보』.
- 김남일, 최순. 1998. “인구이동과 지역 단위별 농촌인구분포의 변화.” 『한국인구학』 21(1): 42-79.
- 김경덕. 2003. 『농촌지역(읍·면부) 인구분석: 실태, 전망』. 내부보고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두섭, 박상태, 은기수 (편). 2002. 『한국의 인구 1·2』. 통계청.
- 김수옥. 1990. “농촌사회 구조변동에 관한 연구: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을 중심으로.”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2(2): 33-45.
- 김태현. 2001. “한국 농촌사회의 변천: 농촌 인구와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4(1): 5-40.
- 김태현, 이창송. 1995. “도시와 농촌 인구현상의 격차와 심화.” 『농촌사회』 5: 95-125.
- 김일철. 1998. 『지역사회와 인간생활』.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형용. 1989. “이농과 농촌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남이면. 2003. 『2003년도 면정보고』.
- 논산시. 2003. 『시정 현황: 함께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
- 논산시. 해당 연도. 『논산시 통계연보』.
- 문옥표 등. 1993. 『근교농촌의 해체과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성현, 곽창권, 김선미. 1986. 『통계지표로 본 도시와 농촌의 사회경제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2002. “농촌의 미래 지표 전망.”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발표자료.
- 오내원. 2000. “조건불리지역 농업의 특성과 직접지불제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

- 학교 대학원 농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오내원 외. 1998a.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1998b.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98년도 특별 분석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근섭, 최낙필. 1994. “과소지역의 구조와 사회적 결속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8: 85-115.
- 이만갑. 1984. 『공업발전과 한국농촌』,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병기. 1999. “선별이농이 농촌사회에 미친 영향.” 『농촌사회』 9: 219-248.
- 이은우. 1993. “한국의 농촌·도시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정환 외. 2001. 『21C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장영식 외. 1996. 『신인구추계에 의한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환. 2003. “농촌인구와 가족구조의 변화.”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와 발전: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 논문집 제2집』: 28~50.
- 정기환 외. 1999. 『농촌 인구 과소화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명채 외. 1995.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제10년 차 조사결과 종합 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명채 외. 1996a.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평야마을의 사회경제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1996b.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산간마을의 사회경제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리읍. 2003. 『2003년 업무보고 자료』.
- 조리읍발전협의회. 2003. 『조리읍 신년인사회 자료』.
- 조승연. 2000. 『한국농촌사회변동과 농업 생산구조』, 서경문화사.
- 채운면. 2003. 『2003년 업무보고 자료』.
- 최양부. 1984. “농촌인구의 감소와 이촌의 장기전망.” 『도시문제』: 8-18.

- 최재석. 1988. 『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 일지사.
- 통계청. 2001. 『장래인구추계 결과』.
- 통계청. 2002. 『200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 파주시. 해당 연도. 『파주시통계연보』.
- 파주시. 2003. 『푸른 파주』.
- Bolton, Nicola and Brian Chalkley. 1990. "The Rural Population Turnaround: A Case-Study of North Devon." *Journal of Rural Studies* 6: 29-43.
- Boyle, Paul and Keith Halfacree (eds.). *Migration into Rural Areas*. New York: John Wiley & Sons.
- Brown, David L. 2002. "Migration and Community: Social Networks in a Multi-level World." *Rural Sociology* 67(1): 1-23.
- Castle, Emery N. 2001. "Wanted: A Rural Public Policy." *Choices*.
- Fuguitt, G.V., C.L. Beale, S.J. Tordella. 2002. "Recent Trends in Older Population Change and Migration for Non-metro Areas, 1970-2000." *Rural America* 17(3): 11-19.
- Freshwater, David. 2000. "Rural America at the Turn of the Century: One Analyst's Perspective." *Rural America* 15(3): 2-7.
- Halliday, Joyce and Mike Coombes. 1995. "In search of Counter-urbanization: Some Evidence from Dev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terns of Migration and Motivation." *Journal of Rural Studies* 11: 433-446.
- Harper, S. 1991. "People Moving to the Countryside: Case Studies of Decision-making." in T. Champion and C. Watkins (eds.). *People in the Countryside: Studies of Social Change in Rural Britain*. London: Paul Chapman.
- Hoggart, Keith and A. Paniagua. 2001. "What Rural Restructuring?" *Journal of Rural Studies* 17: 41-62.
- Hugo, G. J. and P. J. Smailes. 1985. "Urban-Rural Migration in Australia: A Process View of the Turnaround." *Journal of Rural Studies* 1: 11-30.
- Johnson, K.M. 1989. "Recent Population Redistribution Trends in Non-metropolitan America." *Rural Sociology* 54(3): 301-326.

- Kontuly, Thomas. 1998. "Contrasting the Counter-urbanization Experience in European Nations." in Paul Boyle and Keith Halfacree (eds.). *Migration into Rural Areas*. New York: John Wiley & Sons.
- McGranahan, D.A. and Calvin L. Beale. "Understanding Rural Population Loss." *Rural America* 17(4): 2-11.
- Park, Dae-Shik. 2000. "Trend and Prospect of Rural Social Change."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23(Summer): 125-143.
- Rogers, Carolyn C. 2002. "The Older Population in 21st Century Rural America." *Rural America* 17(3): 2-10.
- Rogers, E.M., R.J. Burdge, P.F. Korsching, J.F. Donnermeyer. 1988. *Social Change in Rural Societies*. 3rd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Shumway, J.M. and J.A. Davis. 1996. "Non-metropolitan Population Change in the Mountain West: 1970-1995." *Rural Sociology* 61(3): 513-529.
- Smailes, P.J. and G.J. Hugo. 1985. "A Process View of the Population Turnaround: An Australian Rural Case Study." *Journal of Rural Studies* 1: 31-43.
- Stockdale, Aileen. 2002. "Out-Migration from Rural Scotland: The Importance of Family and Social Networks." *Sociologia Ruralis* 42(1): 41-64.
- Voss, Paul R. and G.V. Fuguitt. 1991. "The Impact of Migration on Southern Rural Areas of Chronic Depression." *Rural Sociology* 56(4): 660-679.

연구자료 D184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과 전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3. 12.

발 행 2003.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E-mail : DONGYP@Chollian.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